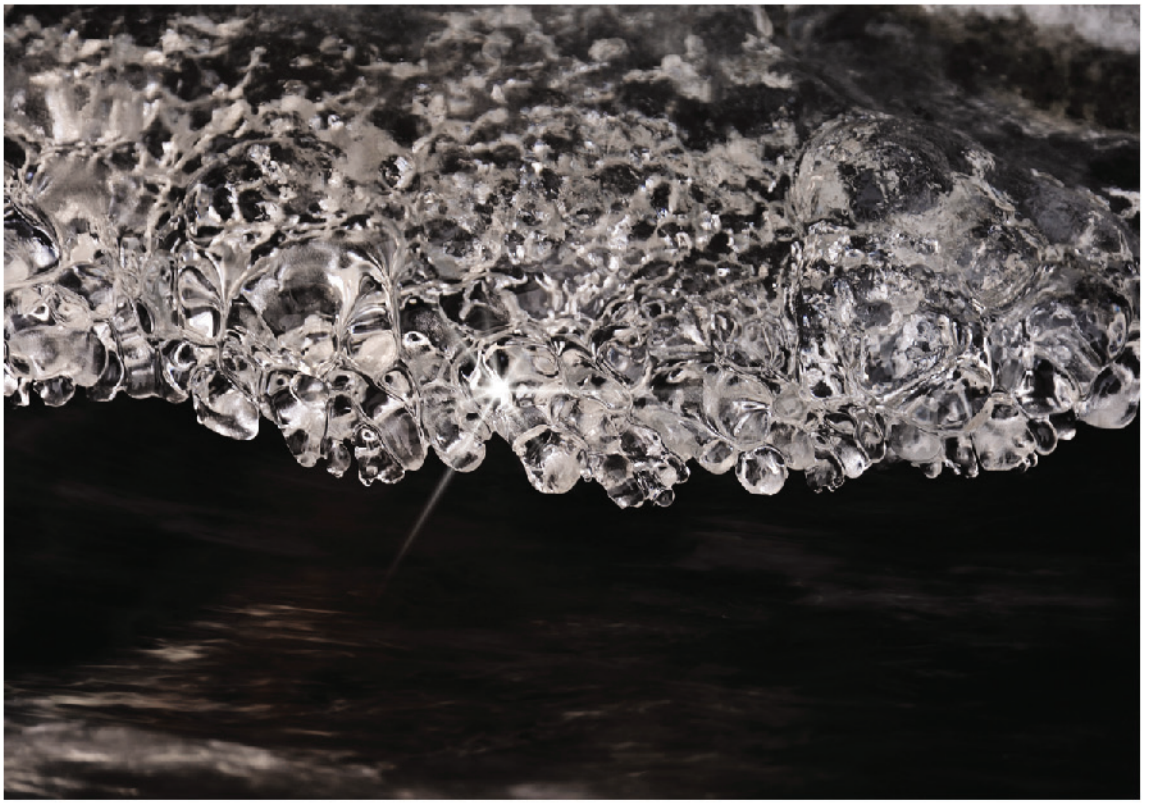
雲門

불기 2558년
겨울호
통권 제131호
雲門僧伽大學

구름문을 펼치다

- 시작과 끝은 통한다. 그렇듯 마무리하는 마음과 시작하는 마음이 한마음으로 통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 사교과 능관
- 색으로 빛나던 것들이 사라지고 황량함으로 얼어붙은 계절, 겨울. 그러나 그 차가운 大地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이 온기를 품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새싹처럼 우리의 수행도 당당히 여물기를 발원합니다. / 사집과 무진
- 하얀 눈을 소복이 둘러쓴 호거산과 그 안에 들어앉은 고요한 운문사 도량을 청풍료 툇마루에서 한번 휘- 둘러보며 삭발 염의한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 사집과 준호
- 정신없이 바쁜 농사(?)일을 하며 그래도 익숙함이 주는 여유로움으로 잠시나마 다리를 펴봅니다. 한 해를 보내며 다시 옷깃을 가다듬고, 용맹 정진하겠습니다. / 사집과 고경
- 겨울철에는 '나'보다 '너'를 그리하여 '우리'를! / 사미니과 청언
- 겨울엔 이곳에서 보면 저곳이, 그곳에서 보면 이곳의 자리가 더 잘 보입니다. 이 겨울의 명징한 기운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다해 보겠습니다. / 사미니과 혜도
- 대중 속에서 살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흐르는 강물 속의 자갈들처럼 둥글어지고 있습니다. / 사미니과 현우
- 모난 돌이 정을 맞아 둥글어지듯이 저도 그러함을 느낍니다. 더욱 싱글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미니과 선우
- 뭐든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 사미니과 휴정



구름문을 펼치다

- 시작과 끝은 통한다. 그렇듯 마무리하는 마음과 시작하는 마음이 한마음으로 통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 사교과 능관
- 색으로 빛나던 것들이 사라지고 황량함으로 얼어붙은 계절, 겨울. 그러나 그 차가운 大地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이 온기를 품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새싹처럼 우리의 수행도 당당히 여물기를 발원합니다. / 사집과 무진
- 하얀 눈을 소복이 둘러쓴 호거산과 그 안에 들어앉은 고요한 운문사 도량을 청풍료 툇마루에서 한번 휘-둘러보며 삭발 염의한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 사집과 준호
- 정신없이 바쁜 농사(?)일을 하며 그래도 익숙함이 주는 여유로움으로 잠시나마 다리를 펴봅니다. 한 해를 보내며 다시 옷깃을 가다듬고, 용맹 정진하겠습니다. / 사집과 고경
- 겨울철에는 '나'보다 '너'를 그리하여 '우리'를! / 사미니과 청언
- 겨울엔 이곳에서 보면 저곳이, 그곳에서 보면 이곳의 자리가 더 잘 보입니다. 이 겨울의 명징한 기운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다해 보겠습니다. / 사미니과 혜도
- 대중 속에서 살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흐르는 강물 속의 자갈들처럼 둥글어지고 있습니다. / 사미니과 현우
- 모난 돌이 정을 맞아 둥글어지듯이 저도 그러함을 느낍니다. 더욱 싱글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미니과 선우
- 뭐든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 사미니과 휴정

불기2558년 통권 제131호 겨울호

雲門

목차

02 호거산 운문사 — 구름문을 펼치다
04 죽림헌 — 신심과 원력 명성
06 교수논단 — 『유마경』 이야기 1 운광
10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 아름다운 변화 일진
12 想 — 다 夢 해운
14 특별기고 — Sallim-ist(살림이스트) 수행자 편집부
18 담소 — 후배스님들께 정평
20 학인논단 — 고대인도 사상사思想史에서 본 붓다의 성도 1 무진
25 풍경소리 — 그대들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진용
26 차례법문 — 밥과 법 주성
28 자유기고 1 — 그분을 대하고… 원결
30 수행의 두레박 하나 — 운문산이 우리를 깨우다 덕현
32 수행의 두레박 둘 — 운문사 인드라망 효주
34 수행의 두레박 셋 — 도반스님들에게 법광
36 운문, 운문인 — 운문의 겨울 그 속의 봄 편집부
38 자유기고 2 — 무상無常 탄현
40 끝없는 여정 — 봉암사 수좌 적명 큰스님을 뵙고 능관
46 이 한 권의 책 —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 명현
48 운문논평 — 계는 수행의 꽃 편집부
50 운문소식
51 등불

신심과 원력

명성 / 운문사승가대학 회주

우리 대중스님들께서는 모두 새롭고 산뜻한 마음으로 활기차게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천겁이 지나도 옛날이 아니요, 만세를 뻗쳤어도 항상 지금이다." (역천겁이불고 궁만세이장금歷千劫而不古 亘萬歲而長今)라는 말이 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 옛날이 아니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지금 현재라는 뜻입니다. 해마다 새 달력을 받을 때면 저는 이 게송이 어김없이 떠오릅니다.

實相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제니 오늘이니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 놓은 허상의 약속들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법성게」에서도 화엄세계의 시간을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념즉시무량겁一念卽是無量劫 구세십세호상즉九世十世互相卽"

찰나의 한 생각에 무량한 시간의 정보가 다 들어 있음을 표현한 것이지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각각에 해당하는 또 다른, 과거 현재 미래가 사실은 서로 함께 여기에 중중무진으로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의 一念이란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 대중스님들은 짐작이 되실까요?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거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항상 현재에 충실하기를 부처님께서도 늘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은 과거나 미래로 움직이는 마음은 거의 대부분 망상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깨어 있고, 지금 내 앞에 주어진 그 일을 진실하게 하는 것이 불교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수행은 어느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즉사이진卽事而眞(매사에 진실하라) 즉 현실에 입각해서 크고 작은 일에 진실하게 실천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깨달음에 나가는 길입니다.

옛 선지식들은 촌음을 아껴 수행정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촌음을 아껴서 수행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願力입니다. 지혜로운 안목으로 세상을 밝히는 훌륭한 수행자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훌륭한 원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보호시牛步虎視(소처럼 걷고 호랑이처럼 본다)'라는 말은 원력을 가진 수행자의 태도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수행자는 급한 마음을 쉬고 진중하게 마치 소처럼 뚜벅뚜벅 앞을 향해 철저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소가 걷는 모습을 보셨지요. 소는 여기저기를 힐끗거리거나 가볍게 껑충거리며 뛰지 않습니다. 쉽게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조그만 일에 들뜨거나 우쭐대지 않는 평상심을 유지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저 소걸음으로 걸을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행자의 눈빛은 호랑이와 같이 빛나고 단호해야 합니다. 당당한 자신감으로 반짝이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흐릿한 눈빛과 어설픈 마음가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대중스님들께서 소처럼 걷고 호랑이와 같은 눈빛으로 확고부동한 원력을 가지고 촌음을 아껴 수행하는 수행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신의 딸을 출가시킨 부모님의 간곡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결코 게으름을 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고 각자 자신들의 원력을 점검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마경』 이야기 1

은광 / 운문사승가대학 강사

목 차

Ⅰ. 머리말
Ⅱ. 『유마경』 이야기
1. 유마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2. 청정한 불국토의 모습
3. 위풍당당 유마거사는 왜 병이 든 것일까.
Ⅲ. 『유마경』에 나타난 마법의 세계
1. 불가사의한 마법세계로의 초대
2. 『유마경』이 제시하는 수행법
Ⅳ. 맺음말

Ⅰ. 머리말

『유마경』[1]은 반야 空과 不二사상을 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수행할 것인가를 설한 중요한 대승경전이다. 『유마힐소설경維摩詰所說經』을 약칭하여 『유마경』이라 부르는데 원래 이름은 「vimalakīrti-nirdeśa-nama-mahayana-sūtra」 즉 「청스러운 유마힐의 설법이라고 이름하는 대승경전」이다. 유마힐은 vimalakīrti를 음역한 것으로 '깨끗한 이름(淨名)' 또는 '때묻지 않은 이름(無垢稱)'의 뜻이다.

『유마경』은 3막 14장으로 구성된 한 편의 희곡을 보는 것처럼 내용이 다양하고 역동적이며 환상적이다. 시공을 초월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모두를 대승의 세계로 안내하는 『유마경』은 오늘날처럼 첨단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 사람들을 위한 경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연극 오페라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새롭게 해석되고 각색되어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경전이 바로 『유마경』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유마경』이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자 한다.

『유마경』은 이미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 즉 진리를 탐구하고 올바른 삶을 살고자 결심한 오백명이나 되는 훌륭한 청년들이 부처님께 보살님들과 부처님들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묻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 그들은 부처님들의 세계, 부처님들의 국토가 궁금한 것이다. 글쎄 불국토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너와 나, 주관과 객관, 부처와 중생,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 삶과 죽음, 자연과 인간, 행복과 불행 등등 끝없이 펼쳐진 상대적 세계에서 우리는 생의 전부를 보내고 있다. 우리의 인식범위는 이것을 벗어난 일이 없다. 그런데 『유마경』에서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무엇인가를 잘못 생각하고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반야심경』에서도 이를 전도몽상이라 하지 않았던가.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너와 나를 둘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유마경』을 통해서 앞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국가와 국가들이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게 논의 · 연구하여 왔다. 그러나 현실상황은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환경문제, 전쟁, 기아, 폭력, 마약, 우울증과 고독감, 자살 등등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보다 지금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풍요롭고 고급스러워졌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돕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양보하는 따뜻한 마음은 사라지고, 항상 부족하고 더욱더 외로워져 버렸다. 이러한 시대에 不二사상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니 마법의 열쇠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유마경』은 수행자 개인의 깨달음에 집중하느라 중생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지 않는 소승의 수행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은 부처님의 뜻에 적합한 수행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위풍당당한 모습의 유마거사가 세련되고 완벽한 모습으로 새로운 문화와 상업이 발달했으며, 진취적이고 자유로운 기백을 가진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인도 바이샬리라는 신도시에 등장을 한다. 그는 부귀와 명예, 지성과 미모, 지혜와 자비, 그리고 수행과 더불어 신통력까지 겸비한, 사바세계가 원하는 모든 스펙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춘 억만장자다.

위풍당당 유마거사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이 부처님께 전해지고 부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 병문안을 다녀올 것을 권하셨다. 그러나 이미 유마거사의 카리스마에 부처님의 10대 제자는 체면이 말이 아닌 상태다.

그들을 제도하려는 유마거사 덕분으로 우리는 사바세계와는 전혀 다른 시공간인 우주 속으로 초대된다. 다양한 부처님의 세계가 마법처럼 자유자재로 전개되고 있는 유마의 방으로 그럼 지금부터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자.

II. 「유마경」이야기[2]

1. 유마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유마경』에서는 유마거사가 법문 도중 사바세계와는 다른 부처세계를 보여주기도 하고, 타방세계의 수많은 대중들이 유마거사의 방을 방문하기도 한다. 또 향적세계에서 향기로 된 음식이 빛의 속도로 배달되어 대중 앞에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은 결코 허구나 과장, 상상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 아니다. 삼매 속에서 나타난 실제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의 세계를 조금 보여주면 어리둥절해서 뭐야 이것은? 하면서 웃어버릴 수도 있다. 사실은 그 세계가 진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가짜인데 말이다.

그런 측면에서 『유마경』을 읽기 전에 유념에 두어야 할 몇 가지와 『유마경』 접근방법을 소개하겠다.

첫째는 우리는 단 한 번도 있는 그대로 여실하

---

1) 대승경전 중 초기에 성립된 「유마경」은 기원후 2세기경에 성립되었으며, 중국에서 일곱 차례 번역되었고, 「유마경」의 한역본漢譯本은 현재 세 본만이 남아 있다. 세 본의 구성 내용은 거의 유사하지만 티베트본과는 약간의 차이가 난다. 세 본 중 지겸支謙(190~220)의 한역본이 가장 짧으며, 현장의 번역본이 가장 길다. 산스크리트 원본을 가장 충실히 반영했을 것이라 여겨지는 티베트본과 가장 근사한 것은 현장의 한역본이다. 현장(602-664)은 「설무구칭경說無垢稱經」이라 번역하고, 구마라집(343~413)은 「유마힐소설경維摩詰所說經」이라 번역했으며, 유마경의 주석서로는 길장吉藏(549~623)이 쓴 「정명현론淨名玄論」이 있다. 「유마경」, (주)시공사, 1997, p.11 참고.

2) 「유마경」은 방등부 경전으로 분류된다. 方等이란 모든 사람의 마음은 똑같아서, 부처님과 같이 깨달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方等에서 방은 넓다는 뜻이고, 등은 균등하고 평등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근기 하근기 모두에 균등하며, 세상에 존재하는 넓고 평등한 진리를 말한다.

게 사물을 바라본 일이 없다. 唯識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극히 미세한 찰나의 순간에 수많은 과거의 경험이 6식 · 7식 · 8식의 필터를 통해 개입된 상태로 사물과 사건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은 공간에 존재하면서 같은 것을 보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A라는 사람에게는 분명 세상이 A의 형식으로 보이고 들리며 그렇게 디자인 된다. 그곳엔 본래 본연의 모습이 없으며, 각자 자기 자신이 분별 · 망상으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공간이 현실이 되어 그것을 사실이라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유마경』의 세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별의식을 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마경』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가득하지만, 반야 공사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깊이 있게 경전의 메시지를 읽어내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면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며, 불생불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둘이 아니며 왜 불생불멸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놓아야 한다. 즉 空에 대한 깊은 사유가 요구된다.

셋째는 초학자들이 경전이나 부처님 교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 파악하고 있으면 명료하고 편리한 접근방법에 관한 것이다.

우선, 내가 공부하는 이 경전이 현상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여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현상의 세계란 생멸의 세계를 말하며 유위법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여의 세계란 不二세계다. 무위의 세계이며, 법성, 실상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다. 무위의 세계는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으로 분리될 수 없다. 이 현상의 세계와 진여의 세계는 같은 시공간에 함께 존재하고 있으나, 지혜의 문이 열려 있느냐, 분별망상의 문이 열려 있느냐에 따라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그렇다면 『유마경』은 不二의 세계를 말하고 있으니 진여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2. 청정한 불국토의 모습[3]

1) 보적의 질문

『유마경』의 공간적 배경은 햇살이 찬란히 비치고 있는 바이샬리 망고나무 숲과 유마힐의 방이다. 망고나무 숲속에서 큰 지혜와 덕행을 두루 갖춘 법회대중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있는 중이었다. 그 때 '보적'이라는 한 장자의 아들이 그의 친구 5백명과 함께 부처님께 예배하고 보석으로 장식된 일산日傘 500개를 공양한다. 부처님은 신통력으로 500개의 일산을 하나의 커다란 스크린으로 변화시켜 그곳에 온 우주의 크고 넓은 다양한 모습의 부처님과 그 부처님들이 설법하는 모습을 화려하고 장엄한 영상으로 보여주신다. 이에 감동한 보적이라는 청년은 부처님의 위신력을 찬탄한 후 부처님들의 세계가 궁금해졌다. 그리하여 청정한 불국토의 모습과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는 수행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이에 대한 부처님의 놀라운 답변은 바로 '중생들의 국토가 보살의 청정한 불국토'라는 것이다. 어쩌면 이 한마디 말에서 『유마경』의 모든 메시지는 다 전달되었는지도 모른다. 중생의 국토가 보살의 청정한 국토라는 것은 『유마경』의 핵심이자 대승불교의 핵심이다. 『유마경』은 서방극락정토나 미래세의 미륵정토를 이야기하지 않고, 유심정토唯心淨土, 차방정토此方淨土를 말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들의 세계, 극락정토는 지금 여기 내 마음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선언이다. 정직한 마음(直心), 깊은 마음(深心), 보리심이 보살의 정토니 보살이 깨끗한 국토를 얻으려거든 먼저 그 마음을 깨끗이 하여야 하고, 그 마음이 깨끗해지면 불국토가 깨끗해진다는 논리이다. 一心이 청정하면 多心이 청정하고 多心이 청정하면 一法界가 청정하다는 『원각경』의 사상이나 일체유심조一切

唯心造라는 화엄사상 모두 唯心淨土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2) 사리불의 의문점

사리불은 『유마경』에서 늘상 어리숙한 소승의 대표선수격이다. 대승의 깊은 이치를 아직 터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질과는 어긋난 질문을 자주하고 있어 유마거사에게 많은 걱정을 듣고 있는 인물로 등장한다. 「불국품」에서 사리불은 "모든 보살은 중생들의 발전과 이익에 따라, 그만큼의 청정한 불국토를 수용하고, 또 보살들 스스로의 마음이 청정해지는 데 따라서 불국토도 청정해진다." 는 말을 듣고 이런 의문을 품게 된다.

'만약 보살들의 마음이 청정해지는 데 따라서 불국토가 청정해진다면, 세존께서 보살 수행을 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청정치 못했으면 이 불국토가 이토록 더러움으로 오염되었을까?' 하는 것이다. 사리불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눈에도 사바세계는 많은 갈등과 부조리, 더러움과 험난한 것들로 혼란스러워 보인다. 부처님 마음처럼 이 세계가 청정해졌다면 아름다움으로 가득해야 하는데 현실상황은 왜 그렇지 못한 것인가에 대한 의혹이다.

이에 부처님은 "장님인 사람이 해와 달을 보지 못하는 것은 장님의 허물이지 해와 달의 허물이 아니듯 세존의 불국토는 청정하지만 그대 사리불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말씀하신다. 사리불의 마음에 높고 낮음이 있어 이 세계가 오염되어 보이는 것이며, 만약 마음이 평등하고 공덕이 청정하다면 이내 불국토가 청정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 "한량없는 중생이 동일한 불국토에 태어나지만 그들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고 더러움을 따라서 불국토를 보는데도 차이가 있는 것이다. 만약 사람의 마음이 청정하다면, 그 즉시 이 땅이 한량없는 공덕의 묘한 보배로 장엄되어 있음을 볼 것이다."[4]

보배로 장엄된 세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앞서 말했지만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상에서 살아간다. 가상의 세계는 실상의 세계가 아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일체유위법은 모두 꿈, 허깨비, 물거품과 같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분명히 꿈이라고 말하고 있다. 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앞에는 산이 있고 꽃과 나무가 여실히 존재하고 있는가? 이 문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확하고 분명하고 진실하게 산과 꽃과 나무가 존재하는 것일까? 정말 그런가? 세심하게 살펴보면 산이나 꽃, 나무는 인간이 붙여 놓은 이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인간만이 사는 곳이 아니다. 잠자리도 사자도 박테리아 세균도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터전이다. 그렇다면 산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山이라 이름할 뿐이지, 잠자리나 박테리아 세균에게는 山으로 존재하지도 山이라 불려지지도 않는다.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모든 것이 전혀 새로운 형태로 끝없이 펼쳐져 있을 뿐이다. 분별심이 모두 사라진 깨끗하고 밝은 거울과 같은 마음으로는 山이 어떻게 보이는 것인가? 사리불 눈에는 불국토가 높고 낮게 보였지만 부처님 눈에는 모두 보석으로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겹겹이 쌓인 번뇌로 보는 세상과 한없이 맑은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표현한 것 중 어느 것이 진실이겠는가?

3) 『유마경』은 전 3권 14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불국품 2. 방편품 3. 제자품 4. 보살품은 서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5. 문수사리문질품 6. 불가사의품 7. 관중생품 8. 불도품 9. 입불이법문품 10. 향적품 11. 보살행품 12. 견아촉품은 『유마경』의 정종분으로서 이 경의 핵심 내용들이 설해지고 있다. 정종분에서는 신통자재하고 부사의한 일들이 유마의 방을 무대로 펼쳐진다. 나머지 13. 법공양품과 14. 촉루품은 유통분으로서 무대배경이 다시 부처님이 계신 망고나무 숲으로 장소가 옮겨진다.

4) 「대정장」 14권, p.538c.

아름다운 변화

일진 / 운문사승가대학 강주

옛날 옛날 아주 오래전 하늘의 신神인 환인桓因에게 환웅桓雄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만 살던 환웅은 인간 세상에 내려가 살고 싶어졌습니다. 환인은 아들 환웅에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弘益人間)"고 신신당부하고 인간세상을 다스리는 천부인天符印 세 개를 주며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환웅은 곧바로 무리 3천여 명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그곳을 신시神市라 하고 스스로를 환웅천황桓雄天皇이라 하였습니다. 이 3천 무리 속에 비를 주관하는 우사雨師, 바람을 주관하는 풍백風伯, 구름을 주관하는 운사雲師와 생명과 질병, 형벌과 선악 등 인간세상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360여 가지를 담당하는 이들을 두어 정치와 교화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땅에 살던 곰과 호랑이가 환웅천황을 찾아가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환웅은 영험 있는 쑥 한 자루와 마늘 스무 톨을 주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곰과 호랑이는 쑥과 마늘만 먹으면서 동굴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후에 호랑이는 얼마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 사람이 되지 못하였고, 곰은 백일이 아닌 삼칠일(21일) 동안 잘 참고 견디어 여자의 몸으로 변하였습니다. 여인이 된 곰(웅녀)은 혼인할 대상이 없었으므로 늘 신단수 아래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이를 본 환웅천황은 잠시 인간으로 몸을 바꾸어 그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바로 고조선의 첫 번째 임금인 단군왕검이라 합니다.

이 단군신화의 이야기는 모두 옛날 어린 시절 신기하게 들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전설 속의 이 이야기를 새삼 추억하고 다시 읽으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화 속의 호랑이와 곰은 인간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 변화를 희망하고 꿈꾸었던 것이 아닐까? 새로운 무엇인가로, 더 멋있는 삶으로, 좀더 괜찮은 인간존재로 거듭나고 싶은 지금의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나, 변화된 나, 범부의 마음을 고쳐 성인을 이룬다는 의미의 '혁범성성革凡成聖'이란 말은 치문시절부터 많이 외워왔던 것입니다. 말하고 생각한데 비하면 과연 나는 정말 얼마나 변했을까? 어쩌면 우리는 변화하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합니다. 온갖 방편들도 다 동원합니다. 간경看經도 하고 참선參禪도 하고 염불念佛도 하고. 이렇게 수행이라는 이름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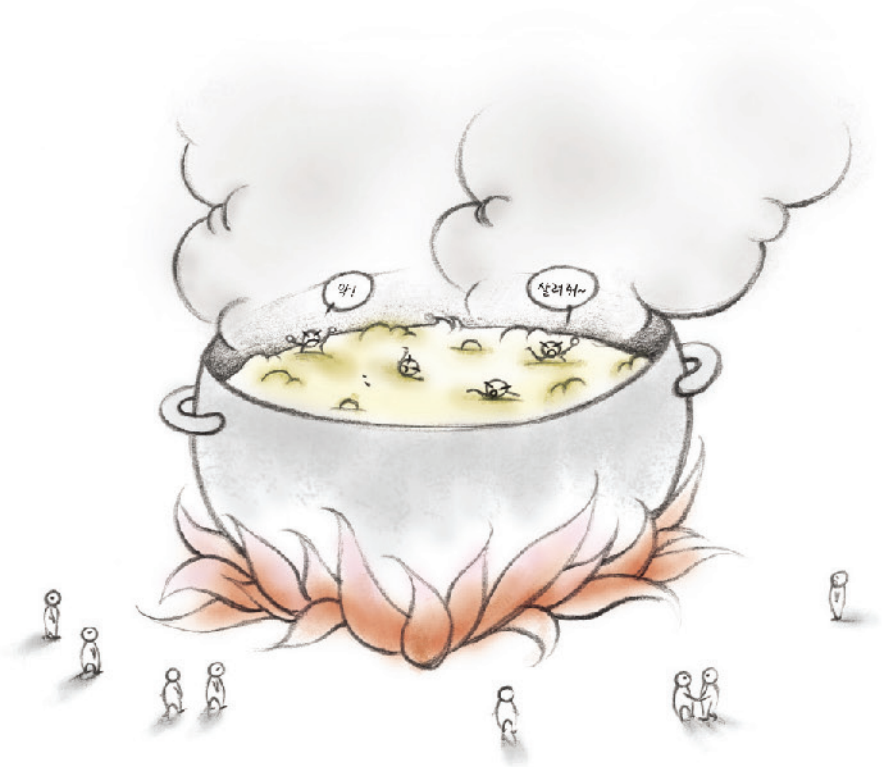
로 자기 역량에 맞게 살고 있음은 분명 변화를 꿈꾸는 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부처님께서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무상無常의 진리로 일깨워줍니다. 산란散亂을 선정禪定으로, 간탐慳貪을 보시布施로, 성냄을 연민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은 다름 아닌 동굴 속에서 참고 견뎌야 했던 곰의 인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미개오轉迷開悟하려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인내가, 그리고 뼈를 깎는 노력이 더 필요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곰이 인간의 몸을 받기까지 진정 필요했던 것은 바로 그 기간을 참고 견디면 약속대로 인간의 몸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곰의 '믿음'입니다. 굳이 『화엄경華嚴經』「현수품賢首品」의 말씀인 "믿음은 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信爲道源功德母)"라는 말씀까지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수행자의 일상 속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곰이지만 인간이 될 수 있다는 확신, 그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로 인간 여자로 변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인간이 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지 절실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 기간을 참고 견딜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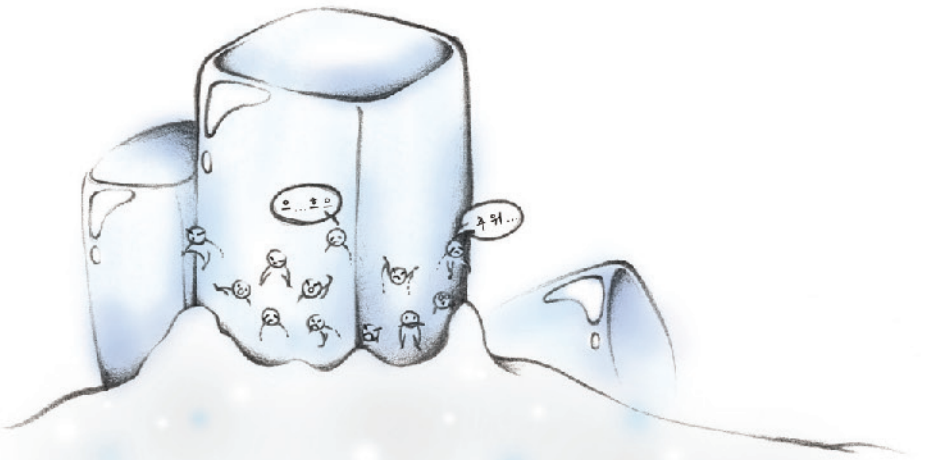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부활했다.' '곰이 여인이 된다.' '범부가 성인 된다.' 참 막연한 말들일 수 있지만 모두 이루어진 일들로 회자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되도록 했을까요? 한 치의 의심 없는 신심信心. 인간 존재의 최고 가치로 의미부여, 그리고 재미있는 노력이 있었을 터입니다.

나는 지금 아름답고 행복한 변화를 위하여 확신과 가치부여의 부단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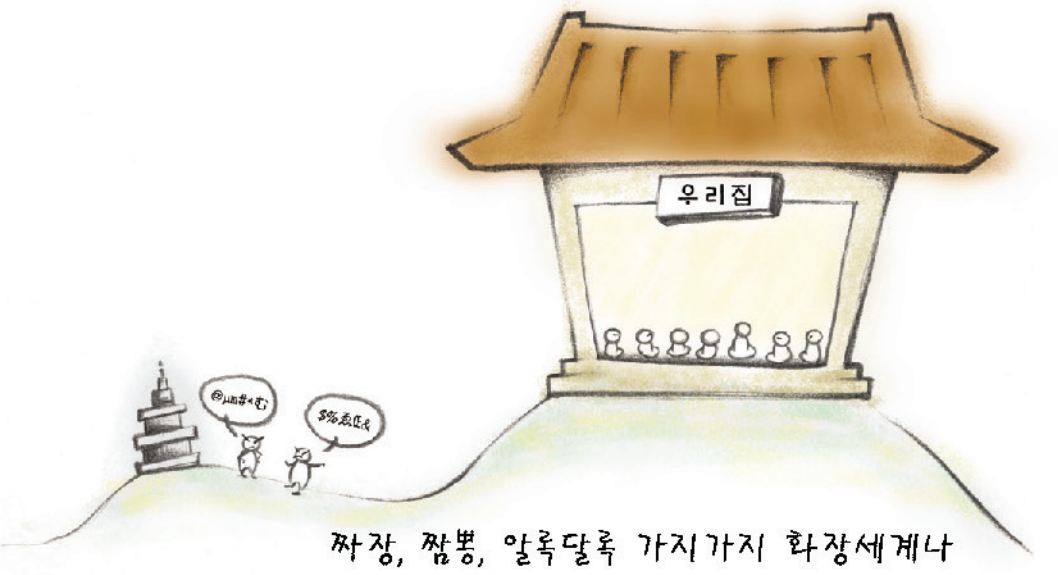
나무변화보살마하살



화탕지옥 가마솥이나



한빙지옥 얼음구덩이나



짜장, 짬뽕, 알록달록 가지가지 화장세계나

Sallim-ist (살림이스트) 수행자

– 원불교 이호연 교무님을 뵙고 –

편집부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 화엄경 -

나무가 자신의 꽃이 아름다워 떨구는 때를 놓치면 다시는 새잎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 강물이 강을 떠나지 못한다면 그곳에서 여정이 끝나 바다의 맛을 모를 것이다. 버려야 할 때 버리고 나아갈 때 나아간다는 것은 시간의 관습에 저항이면서도 순응이다.

운문사 도량에 겨울이 왔다. 형형의 색깔들로 채워졌던 동산의 나무들이 잎을 남김없이 떨 군 체로 서있다. 세찬 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앙상함 뒤의 당당함이 좋다. 자신의 거친 결들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안으로 따뜻한 안목을 지니며 묵묵히 시간을 견디는 그 모습이 수행자와 닮았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는 겨울나무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성종교인과의 만남을 가져 보려한다. 만나볼 분은 이호연 교무님이다. 교무님은 원불교의 출가수도자로서 현재는 익산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병원교당 교무로 근무하신다. 낮고 맑은 음색에서 신뢰가 느껴진다. 인사를 하고 먼저 가장 궁금했던 원불교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원불교는 1916년(원기1) 4월28일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의 큰 깨달음을 계기로 시작된 종교입니다. 20여년의 구도고행 끝에 '만유가 한 體性이며 萬法이 한 근원이다'이라는 깨달음을 얻으신 뒤 장차 인류와 세계의 미래가 물질문명의 발달로 정신문명이 크게 약해질 것을 예견하시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표어를 내걸으셨지요.

소태산 대종사가 깨달으신 궁극적 진리인 법신불 일원상을 종지로 하여 불법의 시대화 · 대중화 · 생활화를 표방하며 일과 공부를 함께 하는 공동체인 불법연구회로 시작하여 1947년 원불교라는 교명을 선포하였습니다. 2015년(원기100)은 개교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원불교는 남녀 출가자들의 지위와 역할이 평등하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원불교는 출가교도와 재가교도로 나눠요. 남녀권리 동일하듯이 재가와 출가도 그러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사상의 핵심은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당시 제자들에게 늘 당부하셨답니다. 항상 신선한 생각, 새로운 태도로 생활하고 삶에 임하라고"

"책을 보니 대종사님의 화두는 '장차 이 일을 어찌 할꼬'인데 이는 불교의 '이 뭣고'와 차이점이 있어 보입니다."

"대종사님은 시대에 대한 통찰이 있었어요. 인도는 인의가 주체이고 권모술수는 그 끝이며 사람의 정신이 능히 만물을 지배하고 인의의 대도가 세상에 서게 되는 것은 이치의 당연함인데 그 주체가 위를 잃고 권모술수가 세상에 횡행하여 대도가 크게 어지러운 상황을 통탄하셨지요. 그래서 세도인심을 바로잡기 위한 고민을 하시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않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9인 제자들과 기도 하였습니다"

"교무님은 어떻게 출가하셨나요?"

"1983년도 대학에 입학했는데 저를 둘러싼 세상을 어떻게 읽어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았지요. 사회과학 공부하

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평등한 세상을 꿈꾸기도 하고, 성경공부를 하면서 하느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유와 평화의 세상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였지요. 그리고 순간순간 내 자신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를 묻곤 하였습니다. 3학년 때 금강경을 읽고 레포트를 쓰는 수업이 있었는데 알 수 없는 눈물이 마구 흘렀지요. 마냥 좋았다고 할까. 그 후로 불교서적을 즐겨 보며 방학 때 마다 가까운 절에 가서 평안함을 느끼곤 했지요. 저의 전공보다는 타과(신학과) 과목 강의를 즐겨 들었는데 한태동 교수님과 유동식 교수님의 강의는 저의 정신세계 특히 종교의 길을 새롭게 열어 주셨던 것 같아요.그리고 제 삶의 방향을 잡게 했구요. '자기답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 이라는 말씀은 지금도 저의 북극성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친구들은 사회운동, 노동운동, 문화운동 등등 세상을 향해 나아갔지요. 저 또한 어딘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감 안에서 제 가슴속 큰 울림은 '자기답게' 였습니다. 그렇게 자기답게 사는 길을 찾다보니 '출가로' 였고 이렇게 '원불교 교무' 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원불교 교무의 길을 걸어온 지 21년.

"병원에서 근무하시는데 어떠신가요?"

"병원에 온 첫날 화들짝!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 여러 교당에서 교화활동을 하였지요. '교무님! 우리 교무님!' 부르는 교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환대를 엄청 많이 받고 살았다는 것, 대접만 받고 사는데 아주 많이 익숙해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무척 놀랬지요. 그래도 이제라도 알아서 얼마나 다행 이예요. 병원 임직원, 입원, 내원 환우 들 등등 1,500여명이 오고가는 의료기관 에서 저는 다시 처음으로 초기화하여 다양한 삶과 사회를 배우며 나누고 주는 마음을 익히고 있습니다."

"병원의 교당 교무로서의 역할은 무엇이며 현재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요?" "원광대 병원 설립이념은 제생의세(의술로써 세상을 구제한다)입니다. 그 이념을 실현하기위한 비전이 건강한 사회를 선도하는 맑고 밝고 훈훈한 병원입니다. 그 비전을 향해 임직원들이 모두 기쁘게 일 할 수 있도록 삶의 의미를 찾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법회와 지속적인 소그룹 활동을 통해 챙기고 있습니다. 환우들에게는 방문 기도를 통해 정성스러운 돌봄을 받고 있다는 믿음을 주고자 하며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더욱 겸허하게 경청하며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맑은 웃음, 밝은 얼굴, 훈훈한 마음이 되자고 임직원들과 간병인들을 격려하고 있지요. 저는 따뜻한 햇볕 교무로 그들과 함께 어울렁더울렁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생에 몸을 바꿔 남자로 태어나 수행하길 바란다는 원을 세우기도 하고 의복도 남성화시켜서 착용하고 생활합니다. 교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태산 대종사님은 남자 몸이든 여자 몸이

든 상관이 없고 각자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단지 기질변화해서 상호 보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제 생각도 그렇고요."

"각자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자리에서 긍정하는 거네요. 그럼 여성수행자로서 더 좋은 점이 있나요?"

"여성들은 대립, 시비 관계를 더 유연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현 시대에는 자애로운 마음으로 어떻게 아픔을 치유할까라는 관점으로 다가가야 하기 때문에 여성수행자가 더불어 살아가는데 오히려 큰 장점이 된다고 봐요."

"앞으로 시대는 여성수행자의 어떤 역할을 필요로 할까요?"

"여성수행자들이 살림-이스트(Sallim-ist)가 되었으면 해요. 모든 경계에 대립의 칼날을 세우며 상처를 주는 것 보다는 외연을 넓혀 경계를 무너뜨리며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살림-이스트. 이 살림-이스트가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운문사 학인들에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행자는 매일 맞이하는 하루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두근거림이 있고, 편견 독단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말랑말랑한 사유. 그리고 중생의 어리석은 욕심으로 아파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토닥토닥 기운을 살려주는 자애로움이 샘물처럼 조촐하게 흐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몸은 만사 만리의 근본이라 하였으니 건강을 꼭 챙기시고 튼튼한 몸 씩씩한 기상으로 두근두근 말랑말랑 토닥토닥! 자기답게!"

출가의 길 초입에서 만난 원각경의 '知幻卽離 離幻卽覺'의 구절이 형상 있는 것에 끄달려 가는 마음에 늘 경책이 되고, 욕심에 헐떡이는 호흡에 항상 상쾌하고 싱그러운 바람이 되어주고 있다는 교무님은 소망한다.

"받으려 하기 보다는 먼저 손 내밀어 잡아주고 따뜻한 마음 나누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아프고 외로운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함께 웃을 수 있는 마음. 한없이 보담아주고 쓰다듬어서 살려내는 부처님의 마음으로 생명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 살림의 바이러스를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눈 덮힌 나뭇가지 위로 새 눈이 올라온다. 봄을 준비하는 것이리라. 교무님의 소망이 봄의 꽃눈처럼 만개하길 바라본다.

후배스님들께…

정명 / 운문사 42회 졸업생

모두들 안녕하신지요? 후배스님들께 인사를 건네는 이 순간, 때로 눈이 흩날리고 투명한 고드름이 나뭇가지 끝에 얼어붙어 있던 청도의 운문사 풍경이 스쳐갑니다. 제가 운문사에서 졸업한 때가 2006년 1월이었으니 어느덧 운문사 학인의 이름을 벗고 살아온 지가 9년의 세월이 다 되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니 새삼 생경한 풍경입니다.

얼마 전, 우연찮게 도반스님에게 운문지에 올릴 만한 글 한 편을 부탁받고 '지금의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를 한참 고심했습니다. 결국, 제 나름으로는 운문사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42회 졸업생의 타이틀을 얻었을 수 있었기에 현재 운문사 강원에서 어쩌면 저처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를 후배스님들께 짧은 편지 한 통을 부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얼굴 모르는 후배스님들께 편지를 쓰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운문사 사미니스님들에 대한 애정이고 나아가 승단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강원시절 그 당시의 저를 '승으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다'라고 표현할 만한데, 혼란스럽고 수치심이 가득했던 그 당시의 저를 향해 오늘의 제가 격려와 애정을 보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배스님들께 보내는 이 편지는 결국 저 자신을 향한 독백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고, 이곳에서 단 하나의 문장이나 한 구절만이라도 스님들께 작은 울림이 된다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겠습니다.

운문사 후배스님들께 꼭 전하고 싶은 제 마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라고 누군가 요청한다면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골방을 폐쇄시키지 말고, 관심과 애정의 햇볕이 가득 들게 하라"입니다. 만약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자존自尊"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자존'이라는 말은 제게 있어서는 긴 세월 명상의 깊은 주제가 되었고, 오늘날 다른 사람들의 번뇌(고통)의 원인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현재 저는 전남 광주 도심에 있는 어느 사찰에서 명상심리상담센터 소임을 맡고, 개인 상담이나 집단 심리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며, 마음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며 공감과 격려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구 심리치료의 분야에서도 건강한 자아의 기능이나 자신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체성 등은 엇비슷한 뜻으로 사용되며 건강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인으로 이해됩니다. 이론뿐 아니라 제가 상담현장에서 만나본 대부

분의 내담자들 역시 그들이 당면한 고통의 호소, 그 밑바닥에는 '자존감의 결여'가 주요한 요인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저 역시 운문사에서 학인으로 지내는 시간이 불만족스러웠던 근본 뿌리를 헤아려보자면 자존감의 결핍을 먼저 꼽을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은 이렇게 초라하고 못났는데, 나는 승으로 자격이 있는 것일까?' 제 내면에서 어두운 골방에 틀어박혀 있는 한쪽의 나를 향한 이런 비난과 검열의 목소리는 상당히 강했고, 운문사에서 보낸 4년 내내 제 내면에서 만들어낸 고통스러운 그 회오리는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내 안에 어떤 모양을 띠고 형성되어 있는 내 모습(어두운 골방에 있는 나, 나의 단점들)을 한쪽의 나(기꺼이 드러나고자 하는 나, 나의 장점들)가 인정하지 않는 형국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내면의 회오리란 '이상적인 나'와 이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의 나'가 충돌하면서 빚어지는 갈등과 혼란, 콤플렉스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향한 자책과 비난의 시선은 필연적으로 외부를 향한 평가와 직결됩니다. 왜냐면 우리들은 '나의 눈(의식, 인식작용)'으로 '나'를 바라보며, '외부'를 보고 또한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 당시 제 눈에 비치는 많은 스님들의 모습과 승단에 포함되는 중생 군상들의 모습도 별로 바람직스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승단을 향한 저의 부정적인 시선은 애초에 삭발염의 하면서 가졌던 깨달음을 향한 희망과 의욕을 꺾어놓기 일쑤였고, 강원에서의 생활을 더욱 불만의 연속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제 문제는 저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했습니다.

조금 장황하게 학인시절의 제 시행착오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 사례가 후배스님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분이 학인시절의 저와 같이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어떤 어두운 그림자의 자신을 만난다면 무조건 차단하거나 회피, 억압하지 말고 어두운 골방에서 침울하고, 괴롭고, 무기력한 자신을 알아주고, 관심 가지며 애정으로 다독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애정은 아만심, 거만함, 자기합리화나 무조건적인 자기도취를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처님의 무아無我사상에 대치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내가 나의 단점까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어루만진 다음에야 참다운 자기성장(해탈)으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진정한 자존감을 획득하고 실현한 분으로 여깁니다. 요샛말로 최고의 심리치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승자박의 '아픈' 중생들을 지혜로 이끌고 편안함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궁극의 깨달음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모두 아픈 중생이지만, 그 아픈 중생은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이 만천하에 선언했던 불성佛性의 존재입니다. 저는 '온전한 불성의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을 '자존'과 비슷한 단어로 썼습니다. 나의 자존을 회복하는 일이 결코 상대와의 비교평가에서 오는 자만심일 리 없고, 또 이러한 자존은 나의 수치심, 단점, 아픔, 중생의 기본 속성 등으로 표현되는 내면의 '어두운 골방'을 폐쇄시키지 않고 지혜의 햇볕을 잘 들게 하고 자기사랑으로 감싸 안을 때야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후배스님들께서 "외부대상을 평가하기 전에 우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고자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승보僧寶로 참으로 장하고 훌륭한 후배스님들~!

육체는 법의 그릇이 되니 항상 자중자애自重自愛하시며 건강 지켜 가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스님들께 응원과 사랑을 보내는 더 많은 분들이 계심을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를 마치는 지금, 제가 있는 광주에는 하얀 눈송이가 차분차분 내리고 있습니다. 무수한 저 눈송이 같은 축복들이 앞으로 큰 희망이 되실 스님들께 충만하길 염원합니다. 엉성한 제 편지글이지만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고대인도 사상사思想史에서 본 붓다의 성도 1

– 초기불전(初期佛典, Nikaya)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

무진 / 사집과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고대인도 사상사의 전개
1) 리그베다
2) 후기베다
3) 우파니샤드
4) 신흥 자유사상가의 출현
2. 불교 성립과 발전
1) 붓다의 성도
2) 붓다의 전법
① 응병여약應病與藥의 설법
② 포교布敎와 전도선언傳道宣言
3. 붓다의 성도가 끼친 영향
Ⅲ. 결 론

Ⅰ. 서 론

'靈性의 나라' 인도는 종교 철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상당히 흥미로운 곳이다. 우선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 등 4개 주요 종교가 모두 인도를 거점으로 발생했다. 또한 총 328만 7263㎢의 면적[1], 12억여명[2]에 달하는 인구 대부분이 종교를 가진 것[3]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철학의 연원은 기원전 13세기로 추정된다. 대부분 종교와 함께 발달해왔으며, 고대 사유의 경우 숭배적 경향이 짙은 신화 형태로 전해진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당시부터 이미 수행을 통한 영성 중장 개념이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창조 신화에서 묘사되는 태초 존재는 신이 닦은 고행의 산물인 열(Tapas)[4]을 통해 출현한다.[5] 고행에 대한 인식 수준이 창조에 비견될 만큼 높았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사실은 베다 시대 문헌 곳곳에서 그려진다.[6]

인도철학은 여러 체계들간 병행과 교섭을 거쳐 발전하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이들 지향점이 모두 미망으로부터 해탈이라는 점에서 최종 목표지점은 모두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 때문에 붓다의 성도成道와 불교성립은 인도사상 발달사 개관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인도 철학사는 크게 전변설轉變說과 적취설積聚說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 전변설은 전통 바라문교의 중심 사상으로, 유일唯一 원리인 브라만에게서 세상이 탄생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는 선정禪定 수행을 통해 천상에 나기를 발원하는 수정주의修定主義로 발전한다.

반면 자유사상가들은 모든 존재에 대해 여러 요소가 일시 결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적취설을 내세운다. 유물론적 관점으로 업業이나 인과因果 등에 다소 냉소적인 입장을 취하며, 향후 고행주의로 연결된다.

이처럼 양극으로 분단된 사상적 기류 가운데 등장한 붓다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했다. 그

가 주창한 '중도中道', '사성제四聖諦' 등 교설은 수많은 이들을 새로운 수행의 길로 이끌었다.

본고는 인도 종교 철학 사상사에서 붓다의 성도가 지니는 의의에 주안점을 두었다. 기존 철학과 구별되는 특이점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리그베다(Rigveda)』로부터 불교 흥륭시대에 달하는 사상 흐름을 짚어봄과 함께 붓다의 교설 체계를 정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교 초기 교리 성립 바탕을 개관하는 한편, 교조敎祖인 붓다의 위대한 전법傳法을 되새겨보는 기회를 통해 동학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하겠다.

II. 본 론

1. 고대인도 사상사의 전개

1) 리그베다

인도 철학 사유의 맹아인 최고最高 문헌 『리그베다』는 기원전 1500년 무렵 중앙아시아 초원 지대에서 이주해온 아리아인(Aryan)[7]들이 편찬한 것으로 추정된다.

베다란 '안다'는 의미의 어근인 'vid-'에서 파생된 명사로 종교적 지식을 의미하며, 나아가 성전의 총칭으로 통용된다.

이 시대 가장 큰 특징은 철학적 사유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지만, 아직 뚜렷한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리그베다』는 인간이 신들에게 바치는 찬미가의 모음집으로, 제의 도중 신을 초대하는 도구 역할을 한다. 신들은 인간과 상호의존관계를 맺고 있어 기도문 암송, 제사 등을 통해 상찬과 공물을 바치면 그 대가로 은혜를 베푼다고 믿었다.

이들은 자연계의 구성요소 및 여러 현상 등을 신격화해 하늘(天), 땅(地), 허공(空) 등 삼계에 33신이 있다고 설정했다. 한편 신들 사이에는 상하 구별이 없는데, 이는 당시 아리아인 부족의 제각기 독

---

1) 세계 7위, 120,849㎢ 의 파키스탄과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영토 분쟁지역이 포함된 총면적.

2) 세계 2위, 미국 중앙정보부(CIA)의 2010년 7월 통계에 따른 기준.

3) 힌두교 80.5%, 이슬람교 13.4%, 기독교 2.3%, 시크교 1.9%, 불교 0.8%, 자이나교 0.4%, 기타 0.7% (인도 개황, 2010. 6, 외교부)

4) 고행이란 타파스(tapas), 다시 말해 열을 체내에 축적하는 수행이다. 고대 인도 수행자들은 고통을 참는 동안 몸에 발생하는 열이 고행이나 공덕의 결과로 저장된다고 여겼다. 아래 각주 5의 신화는 바로 이 같은 고행에 대한 인식으로써 창조를 설명한다. 즉 고행자의 정액은 곧 전능한 힘 타파스의 배출을 의미하며, '존재'(bhava)는 그로부터 탄생된 것이다.

5) 열이 오르자 그로부터 火, 風, 日, 月, 새벽이 출생했다. 프라자파티는 그들에게 "고행하라."라고 주문했으며, 그들이 고행에 전념하자 새벽(프라자파티의 딸)은 天界의 요정으로 변신하여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녀로 인해 마음이 동요된 넷(화 · 풍 · 일 · 월)은 정액을 쏟았다. 그들은 프라자파티에게 그것을 보존하게 해 달라고 간청했고, 프라자파티는 활촉의 크기와 넓이를 지닌 금사발을 만들어 정액을 여기에 부었다. 이로부터 1000개의 발과 화살과 눈을 지닌 신이 출생했는데, 이 신이 프라자파티를 붙들고 이름을 요구하자, 프라자파티는 그 신을 '존재'(bhava)라고 명명했다.
Kauṣītaki-br,. Ⅵ. 1~2. cf. O'Flaherty(1975), p. 31.

6) 「샤타파타 브라마나」에서(Ⅹ.4.4.1~3) 프라자파티는 1천년 동안 고행을 실천하여 악을 물리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또 여기서는 프라자파티가 그랬듯이 고행을 실천한 자는 천상 세계에 살 것이라고 하며, 「타잇티리야 브라마나」에서는(Ⅲ.12.3.1) "신들은 고행을 통해 신의 지위를 얻었다."라고 말한다. Kaelbar, p. 54

7) 기원전 1500년 무렵 인도에 침입한 아리아 인들은 기원전 1000년경부터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농경과 목축 생활을 발전시켰으며, 갠지스 강 유역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도시 국가를 건설하였다. 이들은 자연 현상을 신격화하여 신성이 있다고 믿었으며 신에 대한 제사를 중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사 의식도 점차 체계화되었고, 제사를 주관하는 성직자인 브라만들을 중심으로 브라만교가 성립되었다.

립되어 있던 사회 ·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8]

당시 리그베다 인들은 인간의 영혼을 아수(asu, 生氣), 마나스(manas, 意) 등으로 부르며 불멸이라고 믿는 내세관을 정립했다. 육체가 소멸하면 최고천最高天에 위치한 야마의 왕국에 도달해 지상에서 베푼 선행, 특히 제사와 보시의 덕행에 따른 과보를 향유한다고 여겼다.

2) 후기 베다

기원 전 1000년 이후 갠지스 강 상류 유역을 중심으로 『사마베다(sāmāveda)』, 『야주르베다(Yajurveda)』, 『아타르바베다(Atharvaveda)』가 성립됨에 따라 제식주의祭式主義가 확고하게 자리 잡는다.

이들은 각기 특징이 뚜렷하다. 『사마베다』는 『리그베다』에 곡조를 붙인 신을 찬양하는 노래 모음집이라고 볼 수 있다. 『야주르베다』는 암송 시 반드시 곁들여야 하는 제사 의식을 말하며, 『아타르바베다』는 악귀 · 질병을 쫓아내기 위한 주문과 진언 등을 수록하고 있다.[9] 이 베다의 해설서 격으로 의례의 사회 · 종교적 측면이 설명된 일련의 경전들을 브라마나(Brāhmaṇas)라고 부른다.

이 시대 사람들은 농업 · 수공업 등의 발달로 기존 준유목 생활을 버리고 정착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따라서 왕권이 크게 신장되는 한편 바르나(varṇa)의 네 계급인 브라만(brāhmana), 크샤트리야(kṣatriya), 바이샤(vaiśya), 슈드라(śūdra)가 확립된다.

특히 이 때에 이르면 제식 만능주의로 인해 브라만의 위치가 급상승함[10]과 동시에 향후 범아일여梵我一如 사상思想으로 대표되는 『우파니샤드(Upaniṣad)』의 전변설轉變說이 형성될 태동[11]이 감지된다.

제식은 신과 인간 사이 연결 고리로써 모든 우주 현상을 통치하는 힘으로 여겨진다. 브라만들은 제식의 힘을 통해 신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다. 신 또한 제식의 절대성에 기대어 비로소 불사성不死性을 획득하게 된다.

더불어 육체의 부분 등 생리적 · 심리적 측면에 대한 관찰도 발달한다. 인체는 아트만(ātman)이 존재하는 성城이며, 최후에는 브라만 역시 아트만으로서 이 안에 들어간다고 인식한다.

이상향은 여전히 최고천 야마(Yama)의 세계를 추구한다. 천계의 복락은 무제한이라고 설정하는 한편 사후死後 재사再死에 대한 극복을 바라기도 했다.

3) 우파니샤드

『우파니샤드(Upaniṣad)』는 기원전 800년 이후 수백 년에 걸쳐 성립된 것으로 전해진다. 산스크리

8) 이 시대에는 카스트 제도의 원형인 사회 계급 발생이 진맥된다. 아리아인에 정복당한 토착 원주민 다사 족 등은 노예나 슈드라(śudra)로 전락했다. 반면 부족장과 사제들은 전리품 분배에서 큰 몫을 차지한다. 부족사회는 점차 무사, 사제, 평민 세 집단으로 구분된다.

9) 「베다」 시대 제식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의를 주관하는 호트리(hotr, 신을 부르는 사람)가 낭송한 「리그베다」 찬가와 기도문으로 신의 초대가 끝나면, 우드가트리(udgātr, 노래하는 제관)가 「사마베다」 노래를 부르며 제사의 술인 소마(Soma)를 신께 바친다. 이후 아드바리유(adhvaryu, 절차와 형식을 맡은 제관)가 「야주르베다」의 제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상술한 뒤, 끝으로 브라만 승려가 풍요를 기원하는 「아타르바베다」 주문을 구송한다.

10) "학식이 있으며 베다에 정통한 브라만은 인간이라고 하는 신이다."
「샤타파타 브라마나(śatapatha brāhmaṇa : 최초로 집필된 베다 해설서)」 II. 2. 2. 6

11) "실로 푸루샤(puruṣa :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최초의 인류)를 아는 자는 '이것은 브라만이다.'라고 생각한다. 그 속에 일체의 神格이 앉아 있기 때문이다. 암소가 외양간에 앉아있는 것과 같이."
「아타르바베다」 XI, 8, 32

트어로 '(사제 간에) 가까이 앉음'의 뜻으로, '(스승의 발아래에) 가까이 앉아 직접 전수받는 신비한 지식'으로 해석한다. 당시 지식 전수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 시대에 이르면 최고신을 향한 관심은 적어지는 반면 브라만, 아트만이 동일하다는 범아일여梵我一如 사상을 통해 일원적一元的 원리를 탐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브라만은 우주의 비인격적 최고 원리이며, 아트만은 만물에 내재하는 영묘한 힘 즉 개인의 본체를 의미한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새로운 수행론 정립이 꼽힌다. 그 배경에는 전변설의 관점으로 윤회 과정 및 원인을 설명한 오화이도설五化二道說 및 업(Karma)[12]사상이 자리한다.

오화설은 죽은 사람을 화장하면 달에 가 비로 변했다가 다시 지상에 내려와 식물이 되며, 사람이 이를 섭취함으로써 정자가 되어 모태에 들어가 재생한다는 관점이다.[13]

이도설은 신도神道와 조도祖道를 뜻한다. 신도란 산림 속에서 수행한 이는 윤회를 벗어나 신들의 세계에 태어나는 반면, 조도는 제사와 보시를 행한 사람의 경우 오화설에 따라 윤회한다는 시각이다.

최종목표인 탈윤회脫輪廻, 즉 해탈은 브라만과의 합일로써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감관感官 제어와 함께 명상(Yoga)이 적극적으로 권장된다.

4) 신흥 자유사상가의 출현

기원전 700~500년 사이 갠지스 강의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거대한 사회적 변동이 일어난다. 우선 크고 작은 부족들이 통합되어 군주정치 형태를 띤 16대국이 탄생한다.

신흥국의 중심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사회 계급 구성에도 변혁이 생긴다. 종래 브라만의 권위가 크게 약화됨과 함께 국왕과 자산가(居士)가 강력한 신흥 세력으로 부상한다. 특히 자산가 중 상공업 조합의 우두머리인 장자長者가 높은 사회적 위치에 오르게 된다.

종교 사상계에는 전통 바라문교에 대항하는 세력인 사문沙門(samaṇa)이 등장한다. 자유사상가로 통칭되는 이들은 『베다』와 상반된 견해를 주장하는 한편 신흥도시의 국왕과 자산가들의 후원을 통해 세력을 확장한다.

붓다가 활동했던 기원전 600년경에도 자유사상가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난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우파니샤드』의 전변설과 반대 입장에 놓인 적취설을 바탕으로 윤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이다. 불교는 이러한 견해를 62개로 정리하고 대표적인 여섯 명의 사상가들을 육사외도六師外道라고 부른다. 이들 모두 붓다와 마찬가지로 각기 교단을 이끌던 교조였으나, 교설 측면에서는 전혀 맥락을 달리한다.

이처럼 당시 활동했던 자유사상가들은 인과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또한 범아일여 사상으로 대표되는 브라만들의 상견常見에 반발해 과보뿐 아니라 내세來世마저 없다는 단견斷見을 내세우고 쾌락 중심 풍조를 키워나갔다.

---

12) 『우파니샤드』에서는 인간의 행위를 선악이라는 도덕적 요청에 준하여 규정한다. 전생의 업에 의해 현생의 과보를 만들고 현생의 업에 의해 미래가 결정되는 윤회전생의 사상을 발전시킨다.
소운스님, 「하룻밤에 읽는 불교」, 랜덤하우스, 2011, p. 21.

13) 이것은 당시의 강우 현상과 화장 관습이 결합하여 연기를 타고 天界에 오른 아트만이 비가 되어 다시 지상에 내려온다는 순환의 논법에 의거해 윤회를 설명하려는 소박한 사상이다.
위의 책, 같은 페이지.

사상가	대표 사상	세부 내용
푸라나 카사파 (Purana Kassapa)	도덕 부정론	• 인과응보를 부정함으로써 윤리에 대한 독단적 회의 표명 • 감각적 쾌락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음 • 강도, 살생 등 악행을 저지르거나 또는 보시, 제사 등 선행을 짓는다고 해도 아무런 과보가 없다
파쿠다 카차야나 (Pakudha Kaccāyana)	불멸론 集合論	• 인간은 지수화풍地水火風 4원소와 고락苦樂, 생명生命영혼靈魂 등 7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 사람을 칼로 찔러도 7요소 사이를 통과한 것일 뿐 殺人은 아니다 • 불생불멸不生不滅을 주장함
아지따 께사깜발라 (Ajita Kesakambala, 順世外道)	유물론	• 도덕을 부정하고 현실적 쾌락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음 • 보시, 제사, 공물에는 모든 효력이 없으며, 선악행위에 대한 과보도 없다 • 인간은 사대四大로 이뤄져 사후 존재를 설하는 것은 어떤 근거도 없다
막칼리 고살라 (Makkhali Gosala, 邪命外道)	숙명론	• 인간이 번뇌에 오염되고 청정해지는 과정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없다 • 어리석건 현명하건 모두가 윤회를 통해 언젠간 고통에서 벗어난다 • 인간의 노력, 정진 등을 부정함.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라고 보는 자연론, 운명결정론적 입장을 내세움
산자야 벨랏티풋타 (Sañjaya Belaṭṭhiputta, 不可知論者)	회의론	• 진리를 있는 그대로 인식, 서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선악 행위에 대한 과보의 유무有無에 대해 결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하는 판단 중지 주장
니간타 나타풋따 (Nigantha Nataputta)	자이나 (jaina교)	• 불교와 닮은 듯하나 확연히 다름 • 네 가지의 계율: 불살생不殺生, 불투도不偸盜, 불망어不妄語, 무소유無所有 • 모든 생물에게는 생명, 영혼이 있다고 인정하여 철저한 불해사상不害思想을 주장함 → 교도들이 생명을 해치는 농업보다 상업에 종사하여 이후 막강한 경제력을 갖게 됨

이는 사회 발달에 따른 사성제도四姓制度(Caste) 붕괴가 도덕적 쇠락은 물론 사상 체제의 혼란까지 가져왔음을 시사한다. 고타마 싯다르타(Gotama Siddhārtha)가 출가할 당시 사회는 이 같이 사상 난립으로 인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

2. 불교 성립과 발전

1) 붓다의 성도

초기불전에 나타난 붓다의 성도 과정은 드라마틱하다. 고타마 싯다르타는 기원전 566년, 현재 네팔에 속하는 남서쪽 국경 지역인 카필라바스투(Kapilavastu) 인근 룸비니 동산에서 석가족釋迦族의 부족장 슈도다나(Suddhodana)와 마야 부인(Mahamaya) 사이에 태어난다.[14] 왕자는 탄생 후 7일 만에 어머니를 잃었으나 왕궁의 풍요로운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성장한다.

그에게 철학적 사유와 고뇌가 찾아온 것은 12세에 부왕과 함께 한 농경제 때였다. 난생 처음 농민들의 고된 삶과 마주한 뒤 깊은 회의감에 잠긴 왕자는 잠부 나무 아래 홀로 명상에 잠겨 초선初禪의 경지를 체득한다. 불교에서 수하정관樹下靜觀이라고 부르며 중시하는 이 경험은 후일 붓다의 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후 왕자는 카필라바스투 성의 동東·남南·서문西門에서 노인, 병든 이, 죽은 사람을 차례대로 목격하며 인간의 삶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고苦와 대면한다. 마지막 북문에서 출가 사문을 본 그는 29세의 어느 밤, 갓난 아들마저 외면한 채 담을 넘어 구도求道의 길을 나선다.

14) 석가족釋迦族은 현재 네팔 중부의 남측 변경과 인도 국경 근처에 있던 작은 부족으로, 카필라(현재 네팔의 타라이 지방의 티라우라 코트에 해당)를 중심으로 하여 공화 정치나 귀족 정치(혹은 과두 정치)의 일종이 행해지고 있었다. 족장 가운데 수장을 교대로 선출하는 독립된 자치 공동체였지만 정치상으로는 코살라 왕국에 예속되어 있었다.

그대들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밥과 법

주성 / 사교과

스님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먹는 것입니다. 그럼 스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울력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먹는 것과 관련된 일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스님들은 먹는 것에 과도할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는 일은 솔직히 욕계에서도 가장 말초적인 일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를 뛰어넘고자 삭발염의한 출가사문으로서 먹는 일에 집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법을 깨닫기 위해서는 밥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음식을 먹을까요? 오관게에 따르면, 마음속의 온갖 욕심들을 버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음식을 먹습니다. 번뇌를 물리치고 깨달음을 얻고자, 생사윤회를 끊어 버리고 삼계를 뛰어넘는 인천人天의 스승이 되어 온갖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우리는 음식을 먹습니다. 이렇듯 밥을 먹는다는 것은 수행자에게 있어서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밥은 곧 법인 것입니다.

비구比丘는 음식을 빌어먹는 걸사乞士를 뜻합니다. 부처님 당시 출가 수행자는 걸식에 의존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었으며 시간은 정오를 넘지 않아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공양 때가 되면 손수 가사를 입고, 발우를 들고서 걸식하셨습니다. 음식은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이어야 했고 묵혀 둘 음식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발우 하나에 담겨진 음식 한 그릇이면 그것으로 하루는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2600여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수시로 들어오는 공양물에 의지합니다. 운문사의 밥상은 무척이나 풍성하고 화려합니다. 특정행사가 있을 때는 반찬 가짓수를 세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공양시간에 반찬을 뜰 때면 마음이 무척 바쁩니다. 이것도 먹고 줄겁고 싶고, 저것도 먹고 줄겁고 싶습니다. 온갖 것을 조금씩 다 맛보고 맘껏 즐겁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식하기 일쑤입니다. 그렇다면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먹는 것이 아닐까요? 탐욕은 삼독의 한 가지인데, 애써 먹은 밥이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밥상 말고 다른 먹거리도 정말 풍성합니다. 솔직히 다 먹기 버거울 정도로 들어오

는 공양물의 양은 엄청납니다. 그렇게 먹을 게 많은 데도 여전히 무언가 허전합니다. 바로 코앞에 먹을 게 한 가득인데도 또 다른 특별하고 맛있는 것이 없을까 끊임없이 두리번거립니다.

그 옛날 부처님과 제자들이 거리에서 걸식하여 얻은 발우 한 그릇의 음식 속에는 온갖 것이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차마 사람으로서 먹지 못할 음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정혜 삼학을 철저히 지키는 청정한 수행자에 입에 들어간 순간 그 음식은 세상에서 가장 경건하고 성스러운 음식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자타가 공양한 우유죽을 드시고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집집마다 거두어들인 거친 음식을 먹고 아라한과를 얻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가장 소박하고 천한 음식을 드시고 위없는 가장 숭고한 법을 깨달으셨으며, 보리심을 발하여 뭇 중생을 널리 제도하셨습니다.

『중아함경』에서 부처님은 "밥을 얻었을 때에는 생각하면서 먹고, 탐착하는 마음을 내지 말라. 다만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 얻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숫타니파타』에서는 "음식을 얻을 때에는 칼날의 비유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면도날에 묻은 꿀'을 겁도 없이 탐욕스럽게 먹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치의 어긋남도 없는 인과의 칼날이 언제 되돌아올지 생각하면 이렇게 마냥 화려하고 배불리 먹고살 수는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탐착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겠습니다. 맛있고 맛없고를 늘상 따지고, 또 다른 무언가를 향해 끊임없이 혀를 날름거리는 이놈 한 번 잡아보자고 큰 맘 먹고 집 나온 저희들이 아닙니까. 솔잎가루와 나무껍질 등으로 연명하며 목숨을 걸고 공부해서 깨달은 스승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화려한 음식을 배불리 잘 먹고 깨달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춥고 배가 고플 때에 도심道心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또, 도를 깨닫지 못하면 밥알 하나도 소화시키지 못하며, 도를 깨달으면 하루에 황금 만 냥을 써도 모두 녹일 수 있다고 옛 어른은 말씀하셨습니다. 도심은커녕 입맛만 고급이 된 저는 밥알 하나도 어쩌지 못하는 소화불량 스님 축에 들 것 같습니다.

대중 스님 여러분, 우리 지나치게 잘 먹고사는 건 아닐까요? 풍성한 밥상을 차리느라고, 다 먹지도 못할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오랜 시간을 일하고, 다치고, 아프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먹고 남은 그 많은 음식들이 과연 어디로 가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이렇게 풍성한 공양을 녹일 수 있을 만큼의 덕행을 쌓고 있거나 도업을 이루고 계십니까? 우리가 먹는 밥이 곧 부처님의 법이 될 만큼의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출가사문으로서 어떻게 먹고살아야 하는지 반추하는 저녁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상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

그분을 대하고…

원검 / 사집과

"시자스님!!"

고요하다 못해 적막한 이른 아침, 운문사에 불호령이 떨어진다.

추위에 몸을 웅크리고 잠자고 있던 호랑이의 콧잔등에 눈이 살풋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짱짱한 불호령이다.

헐레벌떡 뛰쳐나가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고개를 돌리니, 시간과 안 맞게 외등外燈이 환하게 비추고 있는 그곳에 익숙한 모습의 노스님께서 심기가 불편하신 듯, 어리숙함이 묻어 있는 시자의 모습을 좇는다.

"날이 이렇게 밝았는데 아직도 불을 켜고 있어! 빨리 꺼…."

날씨가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도량 곳곳을 마치 갓 태어난 아이대하듯 보살피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보시는 운문사의 흥륜興輪 학장스님이시다.

앞에서 비추어 봐도 알 수 있겠지만 학장스님께서는 포행을 자주 하신다. 거의 매일 하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주 하신다. 아니 해주신다.

여기서 학장스님께서 포행하시는 것을 굳이 '해주신다' 라고 표현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학장스님께서는 포행을 허투루 하지 않으신다. 이 넓은 도량을 오랜 시간 걷고 또 걸으시는 이유가 바로 학인스님들의 생활을 유심히 지켜보기 위해서이다.

길을 가시다가 바쁘게 움직이는 스님이 있으면 그 이유를 물으시고, 수각 청소하는 스님들이 있으면 혹 일을 수고롭게 하고 있지 않은가 살펴보시고, 비질을 잘못하고 있는 학인이 있으면 당신께서 직접 비를 잡아 알려주시고… 등등.

이처럼 말로 하면 끝낼 수 없을 만큼 학장스님께서는 관심 있게 도량 곳곳을 살피시며 학인스님들을 알게 모르게 이끌어 주시며, 운문사 도량을 묵묵히 지켜 주고 있는 천진 소나무와 같은 존재이다.

여기서 학장스님께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주인 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점과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라고 등한시하지 않고 서로서로 살펴주며 공존해 나가는 대중 속의 배려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청소를 한다 하더라도 '내 집을 청소한다' 란 생각으로 임하게 되면 아무래도 구석구석을 더 신경 쓰게 될 것이고 길을 지나가더라도 '이곳이 내 집이다' 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쓰레기 하나 그냥 지나갈 수 없게 될 것이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어 보겠다, 이건 치문반(1학년)인 어느 학인 스님의 이야기이다.

여느 스님네들 같으면 그리 눈에 잘 안 들어오는, 아니면 보아도 그냥 지나쳐 버리기 쉬운 고의(승복 바지)도 이분의 눈을 피하긴 어려웠다.

"스님~ 고의가 그게 뭐야… 다 끌고 다니고… 다시 매…."

아… 아무리 도량 내內라고 해도 길을 가다가 고의 때문에 걱정 듣는 것은 여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학장스님께서는 얼굴이 빨개져 급히 고의를 다시 매고 있는 학인이 그마저도 서툴러 보이는지, 당신께서 직접 두 손을 걷어붙이시고는 고의(접는)선을 맞춰 주셨다고 한다. 그때 그 학인스님은 그 사건 후로 고의 하나 허투루 입지 않고, 시간이 지나 나태해질 즈음에도 학장스님의 그 호된 야단보다 더 무서웠던 자상한 손길이 거듭 생각이나, 자신의 나태해지는 정신을 야단치는 회초리가 되었다고 하며, 후엔 도량에서 학장스님의 상호만 봐도 설법을 들은 듯 환희심이 나더라고 하니, 참 신기하고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이야기인 것 같다.

이상의 이야기들만으로도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그 배움에 보답하는 길인지 답을 충분히 얻었으리라. 작게 보면 운문사에, 넓게 보면 비구니 승단에 있어 소중한 어른스님이신 학장스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고 당신의 존재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한다. 글이 미흡하지만 당신께 힘이 되길 발원하며 학인으로서 넘치는 글을 이만 맺도록 하겠다.

운문산이 우리를 깨우다

덕현 / 사교과

운문雲門이라!

문자 그대로 운문사는 구름문을 젖히고 들어오듯 안개가 짙게 내려앉는다.

지난 여름날, 구름문을 뚫고 안개와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 雲! 門! 山!을 도반들과 함께 올랐다. 환희로움과 벅찬 감동이 지금도 여전하다.

동안거 결제가 시작된 그날 밤 운문사를 환하게 비추던 월광月光 보살.

하얀 눈발이 흩날리던 그때 나는,

겨울 눈꽃이 핀 운문산(호거산)과 가지산을 상상해 보았다.

왜 우리는 산행에 미치도록 환장했는가?

그것도 햇볕이 쨍쨍 내리쬐거나 장마철의 질퍽한 사집(2학년)의 여름철에 말이다.

생각해보면, 미치고도 남았던 것 같다. 시원한 새벽바람 결에 운문인 모두가 공감하지만, 자유를 느끼고 규칙적인 삶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해방감.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보다 더 자유로워지고 가슴에 응어리져 있는 번뇌를 풀려고, 휴일이면 더더욱 지대방을 떠나 산으로! 산으로 향한지도 모른다.

산행을 시작할 때면, 우리는 굽이굽이 산을 넘어 선지식을 찾으러 가는 기분으로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일념으로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천수다라니'를 치기 시작한다. 이것이 우리 '나모라 산행'의 시초였다. 또 신심나는 산행의 비결이기도 하다. 산에서 길을 잃거나 식량이 떨어져 허기진 상황이 되어도, 문제 해결사는 다름 아닌 '천수다라니'였기 때문이다.

'나모라' 도반들과 얼떨결에 간 최초의 산행은 운문산이었다.

그 날은 매우 흐렸다.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밀짚모자를 의존한 채 무작정 주먹밥과

보릿물을 걸망에 넣고 걸었다. 목적지는 따로 없었다. 힘닿는 대로 올라가보자는 거 였다. 솔나무 터널이 높이 치켜든 우산처럼 드리워진 해묵은 노송 사이를 여유롭게 걸어서 사리암 주차장에 다다랐다. 오랜만에 한 산보였는지라 비 오듯 흐르던 땀. 치문(1학년) 단오 소풍의 기억으로 학소대 쪽 산비탈을 오르기 시작했다. 단풍나무와 낙엽송이 즐비했다. 연둣빛, 초록빛, 시원하게 들려오는 물소리. 새 생명에 대한 예찬이 저절로 나왔다. 울창한 칡들이 뻗어 오른 심심계곡을 한참 따라 올라갔다.

답답한 가슴, 산바람으로 날려버려라.

재잘재잘. '10분만 묵언하자!'는 막내스님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저마다 답답한 응어리를 풀다 보니 고요한 산길이 시끌시끌하다. 그래도 좋다. 함께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걸핏하면 쉬기를 반복하여 첫 번째 당도한 곳은 딱발재.

너른 억새밭과 무성한 풀에 허무함이 몰려왔으나, 곧 '가지산'과 '운문산' 팻말을 보고 모두들 기쁨의 환호를 쳤다. 운문산이 우리를 부른 듯, 가지산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곧바로 우리는 운문산으로 향했다.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으나 무서울 것이 없었다. 가파른 산길을 1시간 정도 올랐을까. 정상은 도대체 보이질 않고 점점 발목과 무릎은 끊어질 듯 아파왔다. 모두들 지쳐만 갔다. 바람은 점점 거세졌고 우리는 큰 바위를 우산 삼아서 자리를 폈다. 따뜻한 물에 설익은 라면과 찬 주먹밥을 너나 할 것 없이 허겁지겁 먹었다. 이보다 꿀맛일 수는 없었다. 포기할까 망설였던 그 마음을 돌려 우리는 비에 젖은 몸을 일으켜 다시 걷기 시작했다. '구름에 달 가듯 가는 나그네'라 했던가. 점점 운무로 뒤덮여 가는 이 산길을 헤쳐 가면서 서로를 소리로만 짐작하였다. 그런데 몇 분도 되지 않아 앞서 가던 도반스님이 소리쳤다. "와! 정상이다!!" 바로 코앞에 정상이 있던 것을 몰랐던 우리들은 운무雲霧로 가득한 운문산이 눈앞에 펼쳐지자 깜짝 놀라 기뻐서 너나 할 것 없이 부둥켜안았다. 서로를 바라보며 비로소 운문산의 운문인이 되었노라 환호했다.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산하던 그날을 우리는 지금 진흙으로 물든 고의의 흔적을 보며 추억한다. 이 소중한 추억이 지금의 우리를 있게 했기 때문이다.

꼭 수업시간의 경전공부만 고집할 일은 아니다. 염불, 경전공부, 주력수행, 산행 그 어떠한 수행법이라도 아무 문제없다.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옛 조사들도 그러시지 않았던가. 이러한 마음이라면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부처님 공부 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는다. 그 당시 종합병원이라 불리던 도반 한 명이 '나모라' 산행 이후 병원의 발길을 끊었다. 변해도 너무 변했다. 산에서 부처님을 만난 것이다. 산행으로 몸이 건강해지니 자연히 우리의 법체가 원만히 밝아져 간다. 내 마음이 밝아지니 결국 그 빛은 반사되어 밖으로 다시 뻗어간다. 그 빛이 번져 도반들에게까지 기쁨과 즐거움, 편안함을 안겨주니 이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그런가. 산행 후 우리 도반들의 얼굴은 유난히 반짝반짝 빛이 난다. 어느덧 일광보살이 내 도반 되어 서 있다.

아마도, 지금의 우리는 비로자나부처님 앞에서 서로 손잡고 다음 생에 불제자 되어 만나자고 결의한 그때가 아닐까?

운문사 인드라망

효주 / 사집과

아주 못생겼다거나 못되게 생겼다고 생각한 사람이라도 일단 친구가 되면 첫인상에서 가졌던 분별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때 내 짝지가 된 친구는 유난히 코가 낮고 닥종이 인형의 얼굴처럼 생겨 첫인상이 많이 기억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집이 가깝고 짝지가 된 이유로 자연스레 친구가 되었고 이후부터는 못생겼다고 생각하던 첫인상의 분별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일 뿐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이런 경험을 하면서 남에 대한 판단이란 참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익숙해지면 분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반 스님들과도 이렇게 서로에게 길들고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31명으로 시작하여 25명이 되면서 도반의 이탈에 많이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지난가을 반장소임을 맡고 있던 스님이 갑자기 자리를 이탈해 버렸습니다. 반 스님들은 다시 긴장하고 얼떨결에 제가 반장 대타를 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스님은 곧 마음을 돌리고 돌아왔으나 반장소임을 살리기 어렵다는 반 스님들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대타를 살고 있던 제가 자연스레 반장을 한 철 더 살게 되었습니다.

흔히 반장소임은 반 스님 한명 한명에 관계되므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반 스님들에게 실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도 사집 첫 철 반장을 살면서 반을 잘 이끌어야 된다는 생각에 반장소임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았고, 실제로 소임을 놓을 때는 멍에를 벗은 것처럼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반장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진심으로 돌아온 스님이 잘 적응하고, 힘들어하는 반 스님들이 뇌롭지 않게 제가 좀더 신경을 쓰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반장으로서 부족한 점은 많았지만, 반 스님들이 더욱 잘살아 보자는 마음을 내었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무사히 김장을 마치고 가을철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임을 마치고 나서도 반 스님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회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므로 저것이 멸한다."

부처님은 연기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연기법이란 비존재론적 인과율을 말합니다. 인식되는 모든 사물을 하나의 개별 실체로서 인정하지 않는 인과율인 것입니다. 연기란 인연이라는 관계로부터 일어나는 관계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연기존재는 인연에 의지하여 비로소 존재하므로 우주는 그러한 연기 존재들의 인연들이 거미줄처럼 얽힌 인드라망의 세계입니다. 인드라망의 우주이므로 부분의 인연은 물론 전체의 인연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인연에 의지하여 비로소 존재하는 연기존재는 개별 자성이 없는 무아이며, 또한 정지하여 그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성질이 없는 무상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연기법의 설명에서 제법무아와 제행무상은 항상 수식어처럼 동반되는 개념입니다.

어른스님들은 한 대야에서 감자껍질을 까는 비유를 들어 강원에서의 깎이고 다듬어지는 수행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연기법칙적으로 보자면, 파도가 언제든지 작은 파동에도 서로 간섭받으며 자신의 고정된 형체를 고집할 수 없듯이, 우리도 그렇게 직접적이고 절대적인 의존적 존재임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생존경쟁의 정글법칙이 적용되는 세계지만 깨달은 이의 눈으로 보면 실체는 모두가 연기적 존재이며 중중무진의 화엄세계라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대중에서 잘 사는 방법을 묻는 학인에게 바보처럼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위에서 너무 똑똑하여 다른 이의 의도를 다 간파하고 나름의 영리함으로 일을 판단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사람들로부터 스트레스 받는 이들을 많이 봅니다.

성철 스님의 말씀은 정글의 법칙으로 보면 바보 같아 보여도 그저 단순하게 인과를 믿으며 선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衆生心 중에 有眞妄 二意하니 眞中에 不變과 妄中에 體空은 眞如門이요 眞中에 隨緣과 妄中에 成事는 生滅門이니라."

우리는 운문사라는 인드라망에서 복닥거리며 수없이 많은 파동의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연기를 본다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함이요 나아가 그 체도 공함을 여실히 본다면 인연에 따라 출렁이며 생멸을 헤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인간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 많았으므로 남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지극히 개인적인 삶을 살던 나의 모습은 승가 안에서 일체 중생이 개유불성이라는 부처님의 말씀과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중중무진의 화엄의 우주를 꿈꿀 수 있게 됩니다.

도반스님들에게

법광 / 사미니과

도반스님들 오늘도 편안하신지요?

찬바람이 부는가 싶더니 금세 계절은 몸을 바꾸고 벌써 올해의 끝자락입니다. 산에 살면 밖의 사람들은 지루하지 않을까 하고 도리어 걱정들을 하는데, 돌이켜보면 자연은 한 번도 우리에게 같은 모습을 보여 준 적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오늘은 까마귀가 아침부터 처마 끝에서 요란하게 울고 지나가면 다음날은 반가운 제비가 찾아오곤 했지요.

자연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변하고 있지만 그것에 순응하고 있는데, 우리들만 변하는 것에 늘 새삼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자연 입장에서 보면 맨날 '웃었다 울었다 화냈다' 하는 인간만큼 변덕스러운 게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벌써 운문사에 온 지도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올해 계를 받고 말 그대로 연비 자국에 딱지도 앉기 전에, 강원에 와서 어리버리하게 헤매었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말입니다. 대중생활을 직접 체험해 보니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 같이 부처님 공부를 하고 의지할 수 있는 도반스님과, 또 보고 배울 수 있는 어른스님과 옆에서 잘 습의해 주시는 상반스님들이 있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새 강원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어른스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만져볼 때마다 '아 내가 수행자이지' 하며 늘 마음을 새롭게 다진다고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도반스님들의 모습을 보며 '아 내가 출가했지' 하며 제 모습을 확인하곤 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적응하느라 제대로 도반스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못해 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한 방에 모여 같이 먹고 자고 공부하고 씻고 심지어 정랑까지 같이 가는 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지금껏 서로 도와주며 도반으로서 참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 각자 속사정들이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힘들겠지만 말입니다.

제가 정통 소임 사느라 반 스님들과 떨어져 있던 기간이 있었는데요. 강원 와서 내내 도반스님들과 같이 생활했었는데 혼자 따로 떨어져 움직이니 처음엔 좀 어색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대방에서 도반스님들을 만나게 되면 더 반갑고,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좋았어요! 반 스님들이 운력 갈 때마다 혼자 빠져서 정통 간다고 할 때면 노는 거 아니냐고 투정 아닌 투정을 받을 때마다 저는 스님들이 깨끗한 곳에서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도록 열심히 청소하고 준비하곤 했답니다. 또 우리 반

은 아픈 스님이 많아서 어른스님들과 상반스님들이 걱정도 많으시지만, 바람을 견뎌내는 풀이 몸을 뉘일지언정 꺾이지 않는 것처럼 '수행자의 삶'을 잘 살기 위한 연습 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몸의 고통으로 오건 마음의 고통으로 오건 말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치문緇門』에는 "성화 향순聲和 響順하고 형직 영단形直 影端이라", 이는 곧 '소리가 알맞으면 메아리가 순하고 형체가 곧으면 그림자도 단정 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인과법이란것을 나타내 주는 이 글귀를 보고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처음 출가해서는 '계' 받는 것이 목표였고 계를 받고 강원 와서는 강원을 '졸업' 하는 것을 목표로만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지금에서야 제가 무엇을 놓치고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된 거죠. 문득 저는 도반스님들께 어떤 도반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저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저도 모르게 남 탓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지치거나 피곤하여 마음이 들뜰 때면 어김없이 말실수를 하거나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여지없이 후회를 하거나 마음 한구석에 '아, 난 수행자로서 자질 없는가?' 하는 죄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구름의 '+'극과 '-'극이 만나면 천둥이 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큰 천둥소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 없다는 듯, 날씨는 맑아집니다. 그걸 보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각자 자라온 환경과 가치관이 달라, 서로 부딪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이 편지를 통해, 그동안 알게 모르게 도반스님들께 상처 주었던 일이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참회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선천적으로 장이 약해서 아침 발우 공양 시간에 미처 마무리를 못하고 뛰쳐나갔을 때, 저 대신 숭늉 물을 대신 마셔주고 마무리를 해 준 도반스님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외 사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고맙고 미안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벌써 추억이 새록새록 쌓이는 치문 첫 철도 막바지입니다 저는 내년에 들어오는 새로운 '치문반' 스님들과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 기대됩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음을 부처님과 항상 지켜봐 주시는 은사스님, 그리고 많은 스승님께도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항상 함께하는 도반스님들!

"늘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운문의 겨울

그 속의 봄

무상無常

탄현 / 사미니과

'모든 것은 무상無常하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리며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모든 것에 집착하며 고苦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다.

사전事典에서는 무상無常이란, '1.모든 것이 덧없음. 2.일정하지 않고 늘 변함. 3.모든 집착을 떠난 경지.'라고 설명한다. 모든 것이 덧없고, 늘 변화하기 때문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머리로는 이렇게 잘 알고 설명하면서 왜 행동은 안돼서 집착 속에 살아가는지… 참 답답할 노릇이다.

어렸을 때, 은사스님께서 예쁘게 포장된 빵을 사다 주신 적이 있는데, 빵을 싸고 있는 포장이 너무 예뻐서 뜯지 못하고 아껴뒀다가 빵이 상해 먹지 못하고 버려야만 했던 기억이 있다. 포장이 예뻐서 아껴두고 싶은 마음에 집착해 빵이 상할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까지도 그 포장이 예쁘게 느껴지는 것도 아닐 뿐더러 포장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를 않는데 말이다. 만약 그때 포장이 예뻐서 아껴두고 싶은 마음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다면 빵이 상해 먹지도 못하고 버려야만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참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어렸을 때부터 무상에 대해 사유思惟해왔던 것만은 아니다. 운문사라는 강원에 입학하여 도반스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무상에 대해 깊이 사유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도반스님들과 24시간 함께 생활하면서 보이는 다양한 모습에 도반스님들에 대한 분별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 감정들이 감당되지 않아서 힘겨웠을 때, 우연히 이런 문구를 봤다.

'순간은 지나가기로 약속되어 있고, 지나간 모든 건 잊혀 지기 마련이다.'

어찌 보면 단순한 문구처럼 보이지만 내게는 잔잔하지만 강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처음에는 '아, 그렇구나!'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공양을 할 때에도, 입선 중에도 이 문구가 자꾸 생각나서 '이게 뭐지?' 하고 여러 번 되새겨보다가 이 문구에 함축된 의미가 마치 범종소리처럼 웅장하고 은은하게 내 마음에 오랫동안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었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들이 무상한 걸 깨닫지 못하고, 무상한 것에 붙들려서는 짜증나고 화나고 힘들고 서럽고 서운한 감정들에 괴로워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모든 게 내려놓아지는 경지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변하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되기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다스리는 게 그리 힘겹지는 않았다. 한편으로는 무상에서 위안을 받는 것일 수도 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으로 구분되는 게 현실이다. 강사스님께서 말씀해 주신게 있다. 어떤 한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도, 또한 반대로 너무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도 그 마음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그렇다. 모든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변하기 마련인데 무엇이 그리 걱정인가? 오히려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그 마음에 집착하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것일 수도 있다.

무상을 약간 다르게 표현한다면 끝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즉,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만일 지금 병으로 몸이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물론 행복하고 좋은 기분이 끝난다면 아쉽겠지만, 좋은 기분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기분에 빠져 집착하게 될 것이다. 좋은 기분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좋아한다면, 중도中道를 지키며 좋아할 수 있게 되니 일석이조가 아닌가. 나에게 무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로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믿음이자 화두話頭이다. 괴로움에 붙들려 있을 때, 혹은 행복함에 붙들려 있을 때에만 무상에 대해 사유하기보다는 꽃이 지는 것, 낙엽이 떨어지는 것 등 자연스러운 것들 속에서도 무상에 대해 사유해보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는 데에 좋은 방편이 된다. 넓게 보면 이 생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게 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는 살고 싶은 마음에 이 생에 집착하며 고통스러워한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무상에 대해 사유하는 것을 거듭거듭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사전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모든 집착을 떠난 경지에 도달하여 죽음이 와도 여여如如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봉암사 수좌 적명 큰스님을 뵙고

능관 / 사교과

봉암사, 적명 스님, 단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설레는 학인들의 풋풋함과 두근거리는 신심으로 우리는 봉암사로 향했다. 역대 큰스님들의 결사 수행과 현재의 서슬 푸르고 눈 푸른 납자들이 정진하고 있는 곳, 그곳의 중심에 수좌스님이 계신다. 우뚝 솟아 기상이 빼어난 희양산이 내려다보는 곳에서 스님의 자비스럽고 간절한 법문을 들었다.

질문 : 중노릇 하는데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 같아 간절하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좌스님 : 편쿠나, 그러면 됐지, 하하!

예전에 내가 부안 월명암에 잠깐 있었는데… 들어봤나, 부안 월명암? 그때에 비구니들이 몇이 와서 얘기하기를, 처음 중이 될 때는 잘해보려고 신심에 차 있었는데 졸업하려고 하니 마음이 다 풀려가지고, 이래가지고 중노릇 잘 할 수 있겠나? 하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다 난다고 그러더구나.

그래서 내가 그랬다.

걱정 안해도 되겠다. 자기 문제 때문에 눈물까지 흘리면서 염려하고 있다면 지금은 걱정할 때가 아니다. 정말 어떤 때가 걱정할 때냐 하면 자기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마저도 없어졌을 때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중노릇 잘하고 있는 거다. 그랬다.

봐라, 잘 살펴봐라.

실로 중노릇은 혼자 하는 거다. 자기 벗은 자기뿐이다. 자기를 벗 삼아서 자기한테 경책하고 법문하고 그래서 자기한테 배우는 거다.

우리에게 별다른 스승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부처도 조사도 선지식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스스로 따르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 차려야 한다.

스승도 실로 내가 만들고 있는 거다. 나의 결정이 눈앞의 사제 관계를 직접 형성하게 된 것 아니냐. 그러니 최종적이고 유일한 결정권자가 오직 나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하는 거다.

정말 신심이 있는 사람은 조사어록을 못 본다. 정말 신심이 복받칠 때는 조사어록을 한 줄 읽으면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치기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계속 읽을 수가 없다. 너무도 가슴을 찌르기 때문에 몇 줄 읽고 책을 덮고 고마 좌복을 향해 달려가서 정진하는 마음을 내게 된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속에 신심이 정말 일어날 때는 모든 게 경책이고 선지식이야. 하찮게 떠드는 모습만 봐도 그게 탁 마음에 와 닿아서 모든 게 공부해야지 하는 쪽으로 간다. 좋게 말하면 정진 희향이라고나 할까. 사사건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정진하는 쪽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해.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을 일깨우는 것은 자기 말고는 없다. 진정한 선지식은 자기뿐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책임질 생각을 해야만 한다.

간절한 마음에 대한 거는 이거면 되겠냐?

질문 : 무자 화두를 드는데 의심이 나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심이 날 수 있습니까?

수좌스님 : 부처님은 일체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했고, 원각경에도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라' 했다. 허공도 각에서 나타난 바다, 그러니까 각 아님이 없다, 무변허공도 각성, 불성 그 자체라는 얘기다. 하물며 우리들 중생에 관해서이겠는가?

준동함령, 곧 작은 생명도 불성이 있다는 얘기는 부처님이 이미 증명하신 바인데, 부처님 제자로, 부처님의 혜명을 이은 제자로서, 옛 부처라고까지 불리는 조주 스님이, 그런 분이 부처님 말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다. 자, 그렇다면 왜 조주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가? 왜 뒤집는가? 이렇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다.

부처님의 말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는 데는 뭔가 그럴 만한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뜻에서 그랬는가를 의심하는 건데, 그렇게 의심해 들어가는 것을 무자를 든다 말하는 거다.

처음에는 생각을 하면 의심이 가는 듯싶은데, 아 이제 진짜 잘 해봐야지 하고 마음먹고 더욱더 열심히 잘해 보려고 하면 의심이 도망가 버리네, 없어! 자꾸 딴 생각이 나서 훼방을 놓거든, 화두가 도망 가 버리거든. 그러면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다

시 딱 하면 의심이 앞에 있게 되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 하면 다시 헷갈리고, 다른 생각이 와서 있고, 심할 때는 한참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네, 아! 참 내가 화두를 들어야지, 화두 들고 있지, 한참 잊어버리고 있다가 비로소 겨우 제자리에 돌아오거든! … 심할 때는 그렇기도 해.

그렇게 해서, 해도 해도 안 되면 보통은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 이건 아무래도 나한테 안 맞는가 보다, 나는 아무래도 참선 근기가 아닌가 보다, 염불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책을 보든지 그게 나한테 맞는 건가 봐 하고 생각하거든. 그렇게 해서 손을 들고 나서는 기간이 언제쯤인 줄 아냐? 길게는 3~5년이다. 드디어, 아- 나는 안 되겠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그렇게 해서 마침내 돌아서게 돼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때가 생겨서 자기 근기를 의심하는 그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참선을 못하는 거야. 이것을 극복하는 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법화경에 보면 화성유품이 있다. 그걸 토굴에 있으면서 봤으니까 토굴에 있는 나한테 하는 법문인 것 같았다. 그 내용에 보면 '대통지승여래' 얘기가 나와. 그 양반이 마지막 불도를 이루겠다고 보리수 앞에 나아가 앉았는데 10겁이 지나도 불도가 나타나지 않아서 불도를 이룰 수 없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 10겁이 지나야 비로소 불도가 나타나 불도를 이루었다고, 그게 무슨 뜻인가? 10겁 동안에도 성불할 수 없었다는 얘기는 이 '대통지승여래'가 많이 둔근기여서, 둔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도 안 됐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왜 이 사람은 10생도 아니고, 아무리 대근기라고 하지만은 10겁 동안도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앉아 있었느냐.

그걸 나는 보니까 이 사람이 달리 길이 없고, 곳이 없기 때문에, 갈 곳도 없고 갈 길도 없기 때문에, 물러나려야 물러날 길이 없어, 갈래야 갈 곳이 없어, 이 '대통지승여래'라는 사람이 그런 상황이

야. 암만 팝박을 해봐야 도망갈 곳이 있어야 도망가지, 꽉 막혀 있어가지고 길이란 거는 앞뿐이니까.

이거를 불퇴전 신심이라 한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물러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이 세상은 화택이라서, 법화경에 보면 화택 비유가 나오잖아, 화택이라서 물러날 곳이 없어, 가봐야 타 죽는 것뿐이야.

이 세상은 무상하고 마음이 의지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것을 너무도 잘 아는 거야. 깨달음 말고는 자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자기를 숨쉬고 살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깨달음의 세계 말고는 어디에도 의지할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숨을 곳이 없어.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10겁 동안도 불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포기할 수 없었다는 얘기야. 자, 이 사람은 10겁 동안은 참았는데 그럼 12겁 13겁이 됐을 때는 포기했을까? 그런 뜻이 아니지 않으냐. 이 사람은 설사 100겁이 지나더라도 불도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경은 지금 우리한테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가 대체로 마음에 이 세상에 대해서 의지하는 마음이 있고 어디든지 갈 데가 있고 날 받아주는 데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선이 아니라도 경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포교사 할 수 있을 것 같고, 주지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할 것이 많지!

꼭 참선이 아니라도 말이다.

그러니까 하다가 공부가 안 되면 일어서서 딴 데로 가버리는 거야, 갈 곳이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발심을 해서 깨달음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위안이 될 수 없다고 믿고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은 암만 공부가 어려워도, 차라리 죽어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해도, 포기는 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심정이 되어야 뭐라고 하는지 아나? 수좌라고 한다.

그래서 봉암사에 오는 중한테 그런다. 여기 3년만 살아라. 그러면 3년째는 이마에다가 수좌라는 도장이 꽉 찍히게 해 주마. 여기서 수좌라는 도장이 찍히고 나가야 한다.

수좌라는 도장이 뭔 의미냐? 이 일 말고는 할 일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강사도 주지도 할 수 있고, 인연 따라 뭐든지 할 수 있지만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참선을 안할 수는 없다 해서 참선하려고 노력하고, 설사 속퇴를 해서 머리를 기르고 처사가 되더라도 도장이 찍힌 사람은 이 일에 대한 믿음과 기회를 포기하지 못한다.

그니까 세속에 있으면서도 수행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중노릇하면서 이마에 도장이 찍힌 사람이라 한다. 내가 그 도장을 찍어 줄 테니까 3년은 가지 마라 한다.

알아듣나? 하근기 라는 게으른 생각, 안일한 생각,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우리에게 열린 길은 오직 한 길뿐, 오직 그 한 길을 눈여겨보는 것이다.

그게 물러나지 않고 퇴보하지 않고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기도 해. 답 됐나?

질문 :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업에 끄달리는게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을 가야 되는 건 아는데, 업에 자꾸 끄달리니까 자꾸 흔들립니다.

수좌스님 : 그건 모두의 고민이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다. 그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싶은 것, 그걸 욕망이라 하지 않나? 그리고 해야 할 것, 그것은 말하자면 사리를 안다 할까? 인제 그게 구분이 되면, 그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교정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구분이 돼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으면, 욕망과 해야 될 일이 둘이 있다는 뜻이 아니냐? 너는 그런 고민이 있잖아.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거다.

우선 철저하게 어떻게 사는 것이 훌륭한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게 옳은가를 거듭 생각해서 정립을 해 놓는 거야, 그런데 지금 현재는 책도 좀 보고 싶고, 선방에 오는 대부분의 중들도 책에 대해서 관심이 제법 있어 보인다. 책도 좀 보고 싶고 또 사정이 있으면 은사스님, 여러 가지로 봐서 몸도 불편하고 내가 졸업하고 와서 도와주고 보필해 줄 것을 기대하는 눈치인데 그걸 내가 나 몰라라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럼 타협하는 거다. 예컨대 은사스님 몸도 불편한데, 인간 도리상 생사가 암만 급하더라도 3년 동안이라도 시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 그때는 타협하는 거다. 어떻게 하냐, 생활하는 속에서, 시봉하는 속에서 참선을 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루에 10분만 하라고 한다.

그러나 중 이니까 한 30분 정도 하려고 해도 좋을 것 같구나. 하루에 30분씩만이라도 참선을 하려고 결심을 하는 거다. 이렇게 결심하고 생활하는 거야.

그럴라면 두 가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

첫째는 30분을 결코 안 빼 먹어야 한다는 거다. 오늘 빼 먹었잖아? 그럼 내일 보충해야 한다. 그 시간을 엄수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야. 이게 아주 중요해.

둘째는 30분을 하기 전에 자기한테 다짐하는 거다. 이 30분은 나의 중요한 공부시간이야. 참선시간이야. 이 30분 동안에는 다른 무엇도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 그 어떤 것도! 그리고 자기한테 다짐한다. 야, 너 그렇게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꼭 한다! 정말 해야 돼!

어린애 장난 같지만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자기에게 대답하고 세 번 정도는 자기 다짐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염력이라고 하는 건데, 일상의 우리 삶이 염력 아닌 것이 없다. 다 생각으로 생활하거든. 그러니까 무얼 해야 되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은 의외로 굉장히 효과가 있다. 자기가 마음만 내면 어떤 상황에서도 시간을 낼 수 있거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5~6개월 지속하면 순일함을 체험하게 된다. 화두의 순일함을 체험하게 되면 그때는 공부하려 애쓸 필요 없다. 왜냐, 스스로 하고 싶어지니까. 순순히 화두만 해도 좋고 화두 아니더라도, 관법도 상관없어. 그래서 일념이 지속되게 하면 화두는 말할 것도 없고 관을 해도 일념이 지속되면 환희심이 일어난다. 그땐 공부하려고 애쓸 것 없어. 그땐 놔둬도 스스로 하게 돼. 그런 타협점을 찾아서 일상 속에서 정진하는 거다. 그니까 꼭 떨쳐버릴 수 없는 인연이 닿으면 타협을 찾아라. 그러는 것이 좋은 거다, 지혜다. 알겠나.

질문 : 마지막으로 중노릇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좌스님 : 중노릇 잘하려면 부처님 법문을 잘 생각해라.

부처님 법문이라는 것은 깨닫기 전은 몰랐지만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 세계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거든 세계가 한 송이 꽃이다.

그것을 믿고 이해하고 현실에서 계속 반영하도록 하는 거야.

내가 아직 못 가봤지만 가르친 뜻이 '사실인게 틀림없어'라고 믿도록 하는 거다.

예컨대 꿈이 우리 의식이 지어낸 하나의 심상에 지나지 않는 것과 같이 말이지, 잠자는 사람의 의식이 변화해서 하늘도 되고 땅도 되고 너도 되고 나도 되고 꿈속 전체가 잠자는 사람의 의식 세계잖아. 이해하지? 꿈속에서는 하늘도 나고, 땅도 나고, 너도 나고, 나도 난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나만 나고, 너는 절대 내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남하고 싸운다, 내가 아니라고.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깨고 나서 전체가 나의 의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거 웃기는 거 아니냐? 꿈속에서 자기 분열을 일으켜서, 나와 나 아닌 것으로 구분을 해. 다 나인데, 어디가 너다 나다라고 할 것도 없는데 말이지.

화엄경에 이런 글귀가 있다.

'심여공화사心如工畵師', 마음은 그림 그리는 화가와 같다. '화종종오음畵種種五陰' 하나니, 종종의 오음을 그려내나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려낸다는 말이야.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 낸다 했거든, '여심불역이如心佛亦爾' 마음이 그러하듯이 부처도 또한 그러하며, 부처가 뒤에 붙어, 앞에 나오지 않고, 마음만 이 세계를 만들어 낸 줄 아느냐? 부처도 또한 그러하다. 부처도 이 세상을 다 창조하는 창조주다. 그리고 '여불중생연如佛衆生緣'이라, 부처가 그러하듯이 중생도 또한 그러하다. 부처만 세상을 만드는 주인공인 줄 아느냐? 중생도 그렇다. 중생도 이 세상을 만드는 창조주이고 주인공이다. 그래서 '심불급중생心佛及衆生'이 '시삼무차별是三無差別'이라,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세 가지가 다 차별이 없다. 이것이 화엄경의 일체유심조에 대한 핵심법문이거든.

그렇게 지금 꿈 얘기 했지만은 그런 것을 받침하고 있는 경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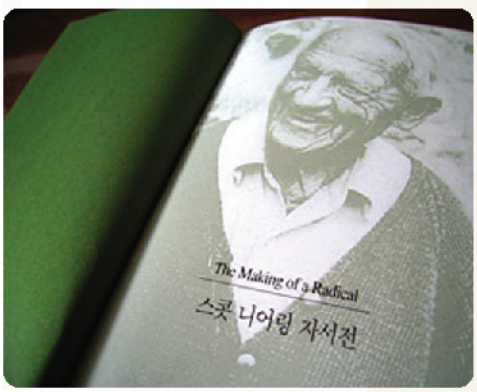
불교, 적어도 대승불교의 입장은 일체가 한마음의 세계라는 것이다. 이런 것을 잘 읽고 듣고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 잘 안 믿어지지만은 믿어야 하는 거야. 불성이라는 게 뭐냐, 대자비심이라는 거야. 대자비심이 아닌 것은 부처가 아니라는 거야. 부처를 이루었다고 하면 대자비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 깨달음의 내용이 불이성이니까, 하나이니까, 중생과 내가 하나니까. 누구라도 고통 받고 있으면 행복이 행복이 안 돼. 그래서 정말 내가 행복하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으면 안 돼. 이게 보살심이고 대자비심이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지 않을 수 없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자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대자비심이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모진 소리 해주고 싶을 때 '야 이건 아니다. 저 사람한테 모진 소리 하면 나한테 모진 소리 하는 거다' 생각하고 참으면 그게 부처행을 하는 거야. 그렇게 주변사람들, 특히 주변의 도반들에게 마음상하지 않게 조그만 일이라도 도와주고 기분 좋은 미소로 대해주려고 하고 그렇게 조금씩 노력해 보는 거야. 큰 것이 보살행이 아니라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보살행이고, 깨달음을 지향하는 마음이고 중노릇 잘하는 길이다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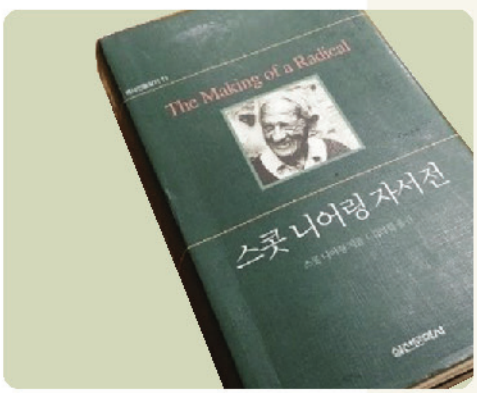
2시간 정도의 시간이 매우 짧게 느껴졌다. 부드럽지만 강한 목소리와 스님의 자비롭고 편안한 모습 속에서 나도 수행해서 스님을 닮고 싶다는 마음이 절로 들었다. 스님이 말씀하신 불퇴전의 수좌라는 도장을 꼭 찍고 싶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

명현 / 한문불전대학원 1학년

The Making of a Radical





물질에 대한 끝없는 욕망과 탐욕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존재할까?

정확히 먹고살 만큼의 돈만 있으면 아무 문제없는, 돈과 물욕에서 자유로웠던 완전한 자연인 스콧 니어링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철학을 고스란히 담아낸 〈스콧 니어링 자서전〉.

이 책은 스콧 니어링이 여든이 넘은 나이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역경의 삶과 철학을 담아낸 것으로 우리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한다.

스콧 니어링은 1883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부유한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며 자본의 분배문제를 깊이 연구했는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앞장서다 해직되었다. 1928년에 스무살 연하 헬렌 노드를 만나 당당히 자신의 생각을 실천하고자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직접 농사지은 음식을 섭취하며, 자기를 잃지 않고 사회를 생각하며 조화롭게 온전한 정신으로 자신들만의 절제되고 검소한 시골생활을 하게 된다. 두 사람은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한 원칙을 세웠다. “돈을 버는 데 쓰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모든 계획과 목표를 고려해서 필요한 현금액수를 정한 뒤 그 액수를 벌 만큼만 환금작물을 생산했다. 그리고 일단 목표액이 채워지면 다음해 예산을 세울 때까지 생산을 중단했다.” 그렇게 얻은 귀한 시간은 명상과 휴식, 책읽기와 여행 등을 하고, 사회활동이나 독서 · 글쓰기 같은 다른 일에 관심을 돌렸다. 수확의 쓰고 남는 것은 이웃과 친구들에게 나누어주며 보낸다. 이들은 절제와 나눔의 미덕을 그대로 실천했다.

“시골생활의 가장 큰 매력은 자연과 접하면서 생계를 위한 노동을 한다는 것이었다. 생계를 위한 노동 네 시간, 지적 활동 네 시간, 좋은 사람들과 친교하며 보내는 네 시간이면 완벽한 하루가 된다.”

그는 백 년의 세월을 철저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가장 완전하고 조화로운 삶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실천적으로 보여주었다. 스콧 니어링은 시골생활이 폭력적인 세상에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 수 있고, 험난한 세상에서 자존심과 품위를 지키며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길이며, 현자나 성숙한 인간이 제 이상과 취향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라고 굳게 믿었다.

더 이상의 할일은 없다고 판단한 그는 1983년 8월 24일, 100세를 살고, 메인 주 하버사이드에서 일체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의학적 배려, 고통을 줄이려는 진통제나 마취제의 도움도 물리치고, 스스로 곡기를 끊고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보기 마련인 자연인으로의 삶! 그런 삶을 치열하게 살아낸 스콧의 자서전은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다수의 행복, 다수의 사회복지, 공동의 가치 등에 관심을 갖게 한다. 스콧과 그의 아내 헬렌의 자연주의적인 삶의 방식은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간소하고 질서 있는 생활을 할 것. 미리 계획을 세울 것. 일관성을 유지할 것. 꼭 필요하지 않은 일을 멀리할 것. 되도록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할 것. 그날그날 자연과 사람 사이의 가치 있는 만남을 이루어가고, 노동으로 생계를 세울 것. 자료를 모으고 체계를 세울 것. 연구에 온 힘을 쏟고 방향성을 지킬 것. 쓰고 강연하며 가르칠 것. 계급투쟁 운동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할 것. 원초적이고 우주적인 힘에 대한 이해를 넓힐 것. 계속해서 배우고 익혀 점차 통일되고 원만하며, 균형 잡힌 인격체를 완성할 것"

우리 인간들은 인류 전체의 일부이자 사회적, 자연적 환경의 일부인 것이다. 그러므로 좀더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인간은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 또는 하나의 이념과 목표를 향해 부단히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스콧 니어링은 조화로운 한 삶을 살아낸 훌륭한 인물의 전형으로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는 자세, 이타적 자유, 평화 사상과 공동체주의의 가치 실천으로 붓다의 사상에도 심취되어 있었던 것 같다.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질문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삶의 수단이나 목표가 비열하고 저급하다면, 그 인생은 살 만한 가치가 없으며 자존심을 유지할 수도 없다. 지식을 습득하고 이용하는 데에도 올바른 동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하며, 그 지식을 말과 행동에 적용하고 생계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이 마지막 명제는 부처가 말한 팔정도八正道 가운데 하나이다. 바른 생활이란 다른 모든 생물들에게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옳은 일에 종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콧 니어링이 삶에서 지켜나간 원칙 중 소박하고 알뜰한 여행을 하는 6개 조항 원칙을 소개하고자 한다.

① 짐은 자기 혼자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큼만 챙겨라. 최소한의 옷가지와 사무용품과, 필기구만 있으면 된다.
② 1등석에서 편하게 여행하지 말고 3등석에서 고되게 여행하라. 화려한 미국식 생활을 피하고 현지 숙박사설과 시장을 이용하라.
③ 식당에 출입하지 말라. 요리할 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대신 과일과 견과와 그 밖의 신선한 자연식품을 먹어라.
④ 술, 담배, 청량음료, 커피 같은 습관성 기호식품을 끊어라.
⑤ 택시를 피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라.
⑥ 여가시간에는 될수록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운동을 하고 많이 걸어라. 그러면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목적을 향한 자신 스스로 원칙을 지키며 쉼 없는 실천수행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새로운 삶들이 무수히 열리는 세계가 올 것이니 살고자 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보라는 자신감을 준 책이다.

계는 수행의 꽃

계를 닦아 마음의 고요함과 청정함에 이르며, 마음의 청정함에 이르게 될 때 지혜를 증득證得하게 된다. 즉 계의 그릇이 온전해야 선정의 물이 고이고 선정의 물이 고여야 지혜의 달이 뜨는 것이다. 계의 그릇이 온전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지혜가 나올 수가 없다. 또한 지혜 없이는 올바른 계행도 할 수 없다.

이처럼 계정혜 삼학은 서로 의존하고 있고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즉, 계는 탐심과 진심과 치심에 의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수행의 기본이며,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이다.

비록 사람이 백년을 살아도
계를 버려 어지러이 날뛰면
하루를 살아도 계를 갖추어
고요히 생각함만 못하다
- 법구경 中-

출가사문이 된 후, 초심자가 가장 먼저 배우고 익히는 것이 부처님의 계율이다.

먹는 것을 절제하고, 말하는 것을 절제하고, 행동과 생각을 절제하고….

부처님의 계행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성불에 이를 것만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계행을 지키고자 한다. 계행을 철저히 지키고 수행하시는 스님들을 보며 환희심을 내고 그들을 닮고자 노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초심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어 간다. 사소한 하나를 지키지 않게 되고, 어느새 두 가지, 세 가지를 지키지 않게 되고 낡아지고 타락해져간다. 그동안의 습관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며 계를 지키고자 다짐했던 마음은 걸림이 되어 스스로 타협을 보게 된다.

계를 지키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생각되며, 걸림 없는 척, 해탈의 척도로 오해하며 계를 지키지 못함에 대한 부끄러움마저 없어진다.

걸림 없는 행위나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하고 벌써 도인이 된 듯, 행동하게 된다. 걸림 없고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대부분 불선심(탐진치)에 속할 뿐이다. 계를 지킨다는 것은 불선심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일어난 불선심을 멈추게 하는 행위의 기본이다. 마음에서 불선심이 일어나도 몸과 말의 행위로 발전되지 않

게 하는 게 계를 지키는 것이다.

우린 왜 이토록 계를 지켜야만 하는가?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닌 지혜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계를 닦아 마음의 고요함과 청정함에 이르며, 마음의 청정함에 이르게 될 때 지혜를 증득證得하게 된다. 즉 계의 그릇이 온전해야 선정의 물이 고이고 선정의 물이 고여야 지혜의 달이 뜨는 것이다. 계의 그릇이 온전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지혜가 나올 수가 없다. 또한 지혜 없이는 올바른 계행도 할 수 없다.

이처럼 계정혜 삼학은 서로 의존하고 있고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즉, 계는 탐심과 진심과 치심에 의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수행의 기본이며,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이다.

부처님께서도 열반에 드시면서 계에 의지하라고 하시지 않으셨는가?

출가수행자도 줄고, 계를 지키며 수행하는 자는 더 줄어들고 있다.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 우린 그 습관대로 살게 된다. 한번 세상에서 물들인 습관도 지금 이렇게 고치지 어렵지 않은가? 초심자인 우리는 이곳 강원에서 제대로 계를 지키고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는 거, 먹는 거, 행동하는 거, 신구의를 잘 단속하고, 계를 지키는 것이 바로 삶을 안정시키는 울타리를 만드는 일이며, 바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계를 지키는 다섯 가지 공덕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을 만난 것과 같고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음과 같으며
병든 이가 완쾌되는 것과 같고
갇혔던 이가 자유를 찾음과 같으며
조난을 당한 이가 구조를 받은 것과 같다."

▲ 오백전백일기도회향

▲ 동안거결제 제사

▲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 특강

▲ 대자원법회

▲ 보현율원 제6회,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제3회, 승가대학 제51회 졸업식

운문소식

- 12월 6일 겨울철 개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동안거 결제제사가 있었고 그동안 주지소임을 사신 일진 스님, 사리암 영화 스님,재무 정혜 스님, 교무 원묘 스님의 사임 인사가 있었습니다. 근념해 주신 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로 주지 진광 스님, 사리암 우송 스님, 재무 송운 스님, 교무 지도 스님께서 살게 되었습니다.

12월 14일 오백전에서 '오백나한님과 함께하는 100일간의 수행' 기도 회향이 있었고, 청풍료에서 진광 주지스님의 회향법문이 있었습니다.

12월 19일 겨울철 포살 법회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포살은 강주 일진 스님께서 맡아주셨고, 산내 암자스님들도 참석하셨습니다.

12월 20일~23일 동지행사로 3박 4일 임시 휴강하였습니다.

12월 27일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의 '화엄경 35품' 특강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12월28일 운문사 15회 졸업하신 아용 스님의 종교에 관한 특강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12월 30일 학장스님과 대교반스님들의 무료급식 봉사활동이 대구 서문시장에서 있었습니다.

12월 31일 학인스님들의 윷놀이가 청풍료에서 있었고, 비로전에서 철야정진이 있었습니다.

1월 1일 음력설이 겨울방학인 관계로 양력 송구영신, 향수해례와 사성례로 새벽예불을 봉행하였습니다.

1월 9일 학인스님들의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1월 11일 교화부스님들이 주관하고 대중스님들이 후원한 대자원법회가 청풍료 어린이 법회장에서 있었습니다.

1월 27일 '성도재일'을 맞아 대중스님들의 철야정진이 있었습니다.

2월 1일 보현율원 제6회,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제3회, 승가대학 제51회 졸업식이 대웅보전에서 거행됩니다

2월 8일 신입생 입학시험이 오전 7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2월13일~3월 23일 38일간의 겨울방학이 시작됩니다

도와주신 분

• 능관 스님 • 종운 스님 • 이기태 • 정해옥 • 안화순 • 송복자
• 심송자 • 김자곤 • 김명자 • 이정숙 • 신현섭 • 삼신사 • 광주정안사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 2002년에 「雲門誌」를 신청해 주신 분들은 10년이 지난 관계로 주소가 삭제되었으니 신청을 원하시는 재가신도분들은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벗을 얻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훌륭한 벗을 얻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음식이나 재물을 서로 구하고 좇는 자는 나쁜 벗이요,
선행을 서로 권하고 나쁜 짓을 서로 경계해 주는 자는 좋은 벗이다.
그러나 나를 올바른 수행길로 인도하고 나에게 최상승법最上乘法을 보여주며,
나의 등불이 되고 나의 눈이 되며 나의 길잡이가 되고 나의 의왕醫王이 되는 자는
진정한 선지식과 같은 벗이니 하루도 멀리해서는 안 된다.

– 운서주굉 『죽창수필』 진정한 벗 中 –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학인스님들의 글을 받습니다.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등 독자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운문사승가대학에서는 2015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운문사승가대학 신입생 모집 공고

자 격 1. 2015년 봄 수계자까지(행자교육 48기까지)
2. 타 승가대학생인 경우 1년 이상 휴학한 스님
모집인원 사미니과 ○○명
시험과목 면접, 사미니율의, 불교 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불교의식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본인 법명 도장 및 증명사진(장삼 · 만의 착용) 2매
5. 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 및 최종학력 증명서
준 비 물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복장은 반드시 사미니 의제 착용, 구족계 수지자는 제외)
모집기간 사전에 우편 혹은 전화, 직접 방문 접수 가능
도착일시 2015년 2월 7일(음력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시험일시 2015년 2월 8일(음력 12월 20일) 오전 7시
교 통 편 대구 남부 버스정류장에서 오전 7시 ~ 오후 7시까지
운문사행 시외버스 수시 운행(운행간격 1시간)

운문승가대학 학장 홍륜 · 주지 진광

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 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공고

모집대상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15년도 봄 구족계 수계 예정자 포함
모집인원 ○명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대학원 · 율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은사스님 추천서 4.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5.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6. 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
7. 증명사진 2매
전형방법 서류심사, 면접
준 비 물 가사, 장삼, 승려증
전형일시 2015년 2월 7일(음력 12월 19일) 오후 2시

운문사 승가대학원장 명성 · 보현율원 율주 홍륜

※ 승가대학 신입생, 보현율원 및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신입생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054-372-8800, 370-7100)와 운문사 홈페이지(www.unmunsa.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雲門僧伽大學

714-881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번지 雲門寺 / 편집부 (054)370-7139 / 종무소 (054)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 · 계간] 겨울호 · 통권 제131호 · 2015년 1월 30일 발행 · 등록 1995년 3월 29일 · 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 · 운문승가대학 / 발행인 · 명성(전임호) 고문 · 진광 / 편집 · 운문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 · 제준 / 편집위원 · 제준 / 사진 · 편집부 / 표지사진 · 제준(紹雪花) / 삽화 · 도훈 / 편집디자인 · Design MARU(디자인 마루) (053)426-3395